朝鮮日報
朝刊
本紙朝夕刊十二面

社說 朝鮮貿易과 그振興策

一

朝鮮貿易協會에서는 同協會主催로 昨五日 京城商議會議室에 貿易振興座談會를 開催하고 朝鮮貿易振興策에 關하야 討議한 結果 貿易振興을 爲하야 必要視되는 十一個目에 達하는 要項을 決定하엿다고한다。그要項은 첫재 對滿貿易에 重點을置하고 一層 그助長奬勵에 努力할것이란 第一條項으로부터 貿易調査研究會를 常設機關으로할것이란 最終條項까지 貿易振興을爲하야 至極 必要한 事項임은 再言을 要치안는다。그러나 이 모든 要項의 實行에는 幾多의 難關도 잇슬것이므로 果然이것들을實行에 옴길수잇슬는지가 첫재疑問이오 둘재로 이要項中에는 貿易智識의普及 中小工業 副業 家庭工業等을 指導하고 貿易品其他市場과 連結시키는것을 奬勵助長할것等의 條項이잇서 朝鮮內輸出産業의 振興도 考慮하고잇기는하나 朝鮮貿易事情으로본 根本問題가 考慮되지 아니한듯한 感이 不無하다。

二

朝鮮의 貿易은 對日本內地貿易과 對外貿易의 兩者로 區分할수잇는데 朝鮮의 對外貿易은 今年上半期에 잇서서 輸出貿易이 大飛躍을보여 輸出額 五千八百六十七萬四千圓으로 前年同期에 比해 二千五百餘萬圓의 激增을 示하야 上半期만으로써 四年前의 年額을 凌駕하엿스니 그 躍進狀은 可驚할바가 잇다할것이나 輸入은 七千三百二十餘萬圓으로 依然 入超일뿐아니라 對日本內地貿易狀況을보면 上半期의 移出은 二億七千八百六十餘萬圓으로 前年에 比하야 七千萬五千圓을 增加한데 不過하고移入은 三億七千七十四萬二千圓으로 前年에 比해 六千八百六十九萬八千圓의 激增을 보이고잇다。그러면 朝鮮의 貿易을 이兩者를綜合하야 興察한다면 眞正한意味로는 아직至極히 貧弱한 狀態에 잇는것을 可히알수가잇다。더구나 對外輸出品을 産地別로區別해보면 上半期 五千八百餘萬圓中의 三千二百餘萬圓이 朝鮮産인데 끄치고 二千五百八十餘萬圓이 日本內地産,外國産인것을보면朝鮮의 對外貿易은 半分以上이 日本內地와 外地를 連結하는 中間貿易에 不過한것이다。뿐만아니라 朝鮮의 對日本內地移出額의 거의 全部가 米穀等農産品인것을 考慮한다면 朝鮮의 輸出産業은 尙今 至極 幼稚한 狀態에잇다할것이다。

三

勿論 上半期의 移入激增은 朝鮮內의 起業이 日復日 旺盛함에따라機械用具等等 生産財의 需要가 增加된때문이라고 할수잇스므로 이것으로써 輸移入全體를 論議할 性質이 못되는點도 업는바아니로되 如何든 朝鮮의 貿易狀態는 表面의數字만으로는 그眞相을 捕捉키 難한것만은 可히 알일인바 그러타면 朝鮮貿易振興을 爲한 對策도 이 根本問題에 關하야 研究함이 업서서는 안될것이다。即 朝鮮貿易의 眞正한 振興을 圖하려면 언제까지나 中間貿易地로서 滿足하는 狀態에 잇서서는 안될것이오 朝鮮內에서 生産될수잇고 外國에 輸出이 可能한 種類의 産業을 擇하야 이를 奬勵함으로서 朝鮮內의 産業의 發達은 勿論 對外貿易에 잇서서도 眞正한 發展을 보게될것이니 貿易振興을 爲해서는 이러한點에 特別한 考慮가 잇서야할것이다。

西伯利亞軍管區 폐砲兵部長被逮

【東京電話同盟】六日某所着情報에依하면 西伯利亞 軍管區砲兵部長페토로프氏는 하바롭스크에서 逮捕되어 莫斯科에 護送되엿다한다 今後赤軍 極東軍內部의 淸掃는 當分間繼續될것이아닌가觀測된다

社會保健省의設置 九日閣議에附議

經費는追加豫算으로서計上 設置案特別議會에提出

【東京電話同盟】六日閣議散會後 特別議會에 提出할 社會保健省(假稱)問題에 對하야 井野企畫廳次長으로부터 說明을 聽取하기 爲하야 近衛首相、廣田企畫廳總裁를 爲始하야 各閣僚가 남어섯는데 井野次長으로부터 今日까지의 經過를 詳細히 說明하고 이에 對하야 各閣僚로부터 各省의 立場에 對하야 各其 質疑及 意見開陳이 잇섯다 新省의 設置案을 特別議會에 提出하되 이에 要하는 經費는 追加豫算으로 計上시키지안호면아니되므로 될수잇는대로 速히 關係各省間에 充分한 折衝을 行하야 具體案을 九日 定例閣議에 附議決定하기로되엿다

保健行政問題로 關係閣僚會合

【東京電話同盟】國民保健行政의 中央機關設置에 關하야 六日閣議散會後 關係閣僚는 首相官邸에 殘留하야 먼저井野企畫廳次長으로부터 保健省(假稱)의 新設로 이에 包括할 行政事項에 對하여는 關係各省과 協議하고 잇는데 商工省의 簡易保險 鑛山 工場保險의 指揮監督 內務省의 社會局衛生局 文部省의 體育課의 所管事項等施設에 關한 移管에就하여는 大體로 決定되엿스나 遞信省의 簡易保險事業移管에 對하여는 아직論議가 未盡되여 正式決定되지못하엿다 經過를說明하고 各閣僚로부터 種種質問意見開陳이잇섯다 本問題에對하여는 大藏로簡易保險事務의 新機關에로의 移管에對하여도 社會政策的見地에서 簡易保險再認識이라는 立場에서理論的으로는 一致되엿스나 其實際上取扱에對하여는 아직遞信事務當局과의間에 意見一致되지못하야 結局問題는 今後에남어잇스나 事務的問題는 何等의妥協點에到着되는대로 企畫廳이 希望하고잇는대로 如히 濟着되리라고觀測된다 그리고 名稱에對하여는『保健衛生省』이가장 妥當適切하다고한다

教育制度及內容 根本的으로改革

新設될教育審議會內容

【東京電話同盟】安井文相은 六日閣議에서 教育審議會의 內容을說明하야 閣僚의 諒解를求하엿는데 說明要旨는 左와如하다

一、教育制度及 內容을 根本的 全面的으로 改革하기를 目的함 따라旣設한 文教審議會는 教育審議會에 包含케함

一、官制案은 目下文部省에서立案中인데 委員數는 六十名을 限度로하고 朝野各方面의 學識經驗者를 網羅할것은 勿論 內閣의 如何에 不拘하고存置케하기爲하야 正副會長은 野에잇는 練達堪能의士를任命할

一、右新機關에 要할經費는 追加豫算으로 特別支出하기로함

皇太后陛下 熱田神宮御參拜

【名古屋電話同盟】名古屋 元離宮에 御駐輦하압신 皇太后陛下께압서는 朝來의 降雨도 快晴한 六日 午前九時 略式自動車 鹵簿로 御出門 同 九時二十五分 熱田神宮 御着 長谷宮司 御先導로 御參拜하압시고 뒤이어서 神樂殿에 御陳列한 神宮寶物을 台覽 同十時二十分 御發 十時十分 御泊所에 還啓하압시엿다 그리고 同夜에는 七時四十分부터 市內女子學校生徒 女子靑年團、縣市商工會議所職員 市內官廳合하야 一萬數千의 奉迎提燈行列이 擧行되엿다

秩父宮同妃兩殿下 十四日瑞西御向發

【倫敦五日發同盟】秩父宮殿下께서는 妃殿下의 御感冒도 거의 御全快하시엿스므로 御靜養하신後 來十四日 兩殿下御同伴하사 瑞西로 赴하시기로 御決定하신 旨로 承聞되다

蔣介石西安半月記 ⑦

『學良前非를懺悔 余의移轉을哀願』

十三日(繼續)

張學良은 今日四回나 나를차저왓다 그의神色은 前日에 比하면 자못 沈着하엿다 밤에그는 軍服을입고 나의房으로드러오드니 내가잘른것을보고『委員長께서 주므시니 깨우지말라』는말을남기고 다시나간다。그는大廳으로 나아가 여러사람과 무엇을 講論하는模樣이나 잘들리지안는다 다만때때로 民意에問하자는듯한 말귀가들린다 이날밤十二時半에 宋文梅가 드러와『孫銘九가 面會를請한다』고 말하다 내가 잔다고말하라하니『孫은 기여히 委員長과 面會하고 **移轉**하시기를 請하것다』고한다 孫이 拳銃을차고 드러오드니『委員長께서 今夜에는 기여히 移轉하시기바란다』고 懇請하매 나는『이곳에서죽겟다 나는 죽기를 盟誓하고 이房에서 떠나지안켓다 너이들은 내가죽거든 이房바게잇는 大廳이 나의墓地라고 가서傳하라 네가武器를갓고 나의房으로 드러온것은 나를 脅迫하는것이다 비록 나에게는 武器는 업슬망정 正義가잇다 죽이고십거든 죽여라 그러나 나는決코 이곳을 떠나지 안켓다』고 말하엿다 孫은 移轉하기를 再三請하다 발두시까지 그는 나의 방에서 떠나지안코려함으로 나는 憤怒를참지못하야『暗夜에 武器를가지고 드러와 사람을 못살게 구는것이 이무슨無理한짓이냐 나는너의上官이다 退出을命令하면 곳나가야 할것이아닌가?』꾸지즈니孫은 곳나간다 叛徒들의 意圖가 甚히 危險한것을 알고잇슴으로 나는 正義와精神力으로서 對抗하기를 決意하엿다 나는 少時에는 聖賢의 書를 숙讀하엿고 자라서는 革命에 從事하여왓다 古來로 忠烈은 죽음을 엿과가티 甘受하엿스니 그들의 正義는 千載에懍烈하다 나도 몸을 昧되게하기보담 그들을 배워 死를擇하기로決心하엿다 **總理**의 大無畏精神은 後生이 맛땅히 배워야할것이다 今後의情狀이 險惡할것은 可히짐작하고도 남음이 잇다 옛날耶蘇는 四十日동안이나 惡魔의試驗과싸웟다 그의艱難苦鬪는 今日 내가 當하는이것보담 몌倍나 甚하엿다 나는 只今正義의힘으로써 叛徒와싸우고잇다 나는 일직耶蘇가 十字架의苦難을 겪근 그精神을 본바더야할것이다 그리하야 叛逆者가 말하는所謂民意라는 그것이 나에게 如何한形式의 死를加하든가 어머니의敎訓에 부끄럽지안코 同志의期待에 背馳하지안토록 從容히 就死하지안호면안될것이다 이心境을 내自身이 省察하여볼때 은快히 泰然할뿐만아니라 只今까지갓고잇는 確信을 實踐躬行하게되는것을 스스로기뻐하엿다

十四日

새벽에 張이 만나려왓다 그는前非를懺悔하는 눈물까지 흘리면서 門에 서잇다 나는 그에게 아모말도 건느지안헛고 그도 아모말도 업시 그대로 가고만다 나는 下人에게 邵主席을 請하여 오라고 命하엿다 한時間이 지나도 그는오지안는다 再三재촉하엿스나『네네』하기만하고 오지안는다。그들의 態度가 **疑心**스러운것으로 보아 邵長官을떠나 或은 不測之患을 當하지나 안헛는가 念慮된다 正午에 張이 再來하야 또다시 移轉하기를 懇請하면서 말하기를『이곳에잇는 警衛는 내가 指揮하는 兵士가아님으로 會見하고 談話하기가 甚히 不便할뿐만 아니라 委員長의 起居와 安全을 責任지고 保障할수업슴으로 매우念慮되다 如何든 高氏邸宅으로移轉하기를바란다』고 請한다 그러나 나는이곳을떠날수업다고 그에게말하엿다 다시張이말하기를『나는委員長의 日記와 其他重要文件을모두 閱讀하엿다 今日에야비로서委員長의 人格이 偉大한것을아럿다 革命에對한 委員長의 忠誠과 國家를救하려하는 苦心은 吾人의 想像도 未及하엿다 委員長께서는 日記中에 나의無人格한것을 辱하엿다 나는今日에야 事實上 나의無人格한것을스스로 깨다럿다 平素에 委員長께서는 部下에 對하여도 너무 關默하엿다 내가 萬一 日記에 記錄한十分之一만이라도 알수잇섯다고하면 今回와가티 輕率한 妄動은 敢히 못하엿슬것이다 現在 나의觀察이 錯誤이엿든것을 깨닷고 領袖로서의 委員長의 人格이 偉大한것을 認識하는以上 全力을 다하야 委員長을 保護할이 國家에對한 나의義務인줄로 생각한다 如何든 이곳에계시면 아무辨法도업다 委員長께서 **移轉**하시지안키로 決心하섯드라도 나는모든일을 다하야 이곳을떠나시도록 할수밧게업다 萬一委員長께서 步行하시기를 不肯하시면 나는 委員長을 업고라도가겟다』하나 그래도 나는 그의要求를 拒絶하고 南京으로 歸還할때까지 나는 이곳에서 떠나지 안켓다고 言明하니 나를 이곳에서 옴기려하는것은 남모르게秘密히 南京으로 보내기爲함이라고한다『내가 西安을 떠난다고하면 公公然하게 떠난다 決코 秘密裡에 潛行할수는업다 人格이 生命보다 貴重하다는것은 再三네에게 말하지안헛는가』하니 張은 突然『도날드』氏의 電報를 내여보인다 電文에는 그가곳西安으로오겟다고하엿다 世上에서는 도날드氏를 政府에서 招聘한顧問이라고하나 事實 그는 나의親友로 우리집의 客이되엿든이다 그는 官名이라든가 顧問이라는 이름을 願치안는人物이다 그가 이번에西安에 오는것은 나의妻의 附託으로 나의生死를 探視하기爲함이다 나는 張에게 도날드氏가西安에 到着하면 만나게 하라고말하엿다 張은 그래도 移轉하자고조른다 도날드氏가오면 다시말하자고하니 張은 또다시 눈물을흘리며 얼마잇다가 房에서나가다

爲替許可制强化

義務履行의與否認定도許可事項으로 政府原案、委員會서承認

【東京電話同盟】大藏省에서는六日午後二時半부터 永田町藏相官邸에 外國爲替管理委員會를 開催하고 賀屋藏相으로부터 인사가잇슨後 上山爲替局長으로부터 昭和十二年 大藏省令 第一號의 說明、輸入爲替許可制의 改正및 昭和八年省令 第七、第八條改正에關한 說明이잇고 다음質疑應答에 옴겻는데 特히 津島日銀副總裁로부터 株式配當金 其他收益의 送金및 海外法令에基한 義務履行으로 送金을 許可事項으로함에 關하야 이에憑藉하야 資本의 逃避를 行할수잇슴으로 當局의 取締에對하야 善處를要望한데對하야 政府는『義務履行인가 또는 아닌가하는 境遇의 認定에 對하야도 許可事項으로하야 明白히 할方針이라』는旨를 言明하고 諒解를求하고 滿場一致 政府의 原案을 可決하야 七日公布 即日實施키로하고 同四時散會하엿다

當分間施行! 散會後賀屋藏相談

【東京電話同盟】六日外國爲替管理委員會散會後 賀屋藏相은 左와如히 말하엿다 輸入爲替管理에 關한大藏省令은 今年七月末日로서 効力을失하게되엿는데 其後에잇서 情勢의 推移에鑑하야 繼續하야 當分間 施行하기로되엿다 그리고 今日까지 實施한經驗에 徵하면 一個月 三萬圓以下의 自由取引規定이 濫用되는 傾向이 잇슴으로 이를一千圓으로 引下하기로하엿다 爲替管理强化는 其影響하는 바가 큼으로 政府도 其運用에 當하여는 더一層考慮하야 國內産業進展과 貿易發展에可及的障害를 與하는 일이업도록 萬全을期할 方針이다

爲替管理强化에 銀行의協力要望

【東京電話同盟】大藏省에서는七日午前十一時부터 藏相官邸에爲替銀行代表者를 招待하야 六日 爲替管理委員會에 決定된 爲替管理强化에 關한 主旨및具體的方針에 對하야 說明하고 諒解를 要求하야協力을要望할터이다

貴院調査會審議要目

【東京電話同盟】六日의貴族院制度調査會總會에附議된 審議要目은 左와如하다

一、貴族院機構改善의目標
一、貴族院議員의種別及員數
一、貴族院議員의資格及要件及任期
一、貴族院議員의選任
一、其他貴族院議員機構改善에關한問題

故齋藤子記念事業會

故齋藤子爵記念事業會 第一回協議會는 今六日午前十一時부터 朝鮮호텔에開催되여 委員長大野政務總監以下 委員三十餘名이出席하야 朝鮮에잇는故子爵의遺業을永久히記念하고저 그所要經費二十萬圓의 募集에關한 配當을 決定하고 來二十二日부터 各其募集에着手하야 昭和十四年七月까지에 左의記念事業을實施할것을決議하고 午餐을가리한後 午後一時散會하엿다

一、傳記의編纂
一、銅像建設
一、圖書館及新墓地의維持保存
一、育英事業

生命保險監督權 保健省으로移管

商工省도大體로贊成

【東京電話同盟】保健省(假稱)設置에關하야 井野企畫廳次長으로부터 六日閣議散會後의 懇談에서 遞信省簡易保險局을 新設하는 省의外局으로 移管하는同時에 現在商工省保險局에서 取扱하고잇는 生命保險은 그監督權도 그傘下에 옴기고십다고 要望하엿슴으로 商工省에서는 右에對한 態度決定을 爲하야 六日午後一時부터 吉野商相官邸에 省議를 開하고 吉野商相村瀨次官後藤保險局長其他關係首腦出席으로 여러가지로協議하엿는데 商工省의 意向은 大體로 企畫廳의 意向대로 生命保險의 監督權의 移管은 承認할터인데 오직生命保險은 産業金融等에 占하는 重要한 地位에 鑑하야 그金融에 關한 監督權만은 商工省과 新設省의 共管으로하고시픈 方針으로 이點에 對하야 近日吉野商相으로부터 企畫廳에 對하야 交涉을 行할터이다

人事·集會

◀新貝氏(全羅南道知事)新任人事次來社

夕刊後市況 六日

◆橫濱 生糸 後引◆ 當限八八七○○ 先限八六九○○
◆福井 人絹 後引◆ 當限 —— 先限 八四六○

蘇砲艦二三隻尙殘存

【東京電話同盟】六日 某所發電에 依하면 乾岔子島事件으로 擊沈된 蘇聯砲艇은(廿五噸程度)乾岔子村前方七百米의 河中에 아직도 殘骸를 남기고잇는데 乾岔子 金阿穆河兩島의 蘇聯兵은 四日까지에 全部 撤退를 完了하고 또 砲艇의 大多數도 이미 撤退하엿스나 아직 二三隻을 남기엿다한다

蘇聯에嚴重抗議

【新京六日發同盟】滿洲國外務局에서는 五日 東部國境에서 三回나 反復된 蘇聯兵의 日本國境監視隊狙擊事件은 明白히 蘇聯兵이 滿洲國領土를 侵犯하엿고 또 日本兵二名에 輕傷을 與하엿스므로 六日午前 北滿外交特派員 施履本氏로하여금 蘇聯哈爾濱總領事代理 그즈네쓰오프氏를 通하야 蘇聯政府에 對하야 嚴重抗議를 發하엿다

人事異動이以上안코 新聞統制不考慮

□南總督釜山上陸談

【釜山電話同盟】天機奉伺及 政務協議次로 渡東中이든 南總督은 六日午後六時에 入港한關釜連絡船德壽丸으로 歸任하엿는데 總督은 約四週間만에歸任 阿部知事를 爲始하야 官民多數의 出迎에 上陸 貴賓室에서 小憩하면서 左와如히 말하고 自動車로 松島호텔에赴하야 休息한後 午後九時五分發 山本機關列車로 歸京하엿다 今回의 渡東은 着任以來 처음으로 天機를 奉伺하고 朝鮮의狀況을 詳細히 陛下께奏上하엿는데 惶悚하압게도 陛下께압서는 終始御熱心히 天聽하압시사 豫定의 時間을 만히超過하야 一時間餘 詳細奏上하엿다 [illegible]에 여러가지로 優渥하압신 聖下問을 賜하압신것은 實로 恐懼不堪하는바이다 渡東目的을 十二分達成한것은 非常히 光榮으로 역이는바로 이를먼저 半島官民에게 알리게된것은 가장愉快히 역이는바이다

◇

朝鮮統治의 現況에 對하여는 政府의 各閣僚及 各關係方面과도 親히 말할 機會를 어더 渡東以來 寧日이업시 奔走하엿다 特히 內鮮融和의指導精神에 對하여는 勿論今日은 內鮮一體가되여 融和로 轉換케할 나의 方針도各方面에 諒解와 贊同을 어든것은 欣快不堪한다 特히 朝鮮中央協會의 會合에서는 拓務省長을 비롯하야 內外官民界有力者多數가 出席하엿는데 此等人士가 內地에서 多年內鮮人融和에 努力한 實情을 드른것은 나의큰 收穫이엿다 歸任後 其結果를 半島住民에게 報告할수잇게된것은 非常히 기뻐하는바이다

◇

歸途大阪에서 知事、部長、師團司令官主催의 歡迎會에 臨하야 여기서도 여러가지 會談을하엿다 特히二十二萬의 朝鮮人을 擁한 大阪府에서 朝鮮의 警務局長으로在任하야 朝鮮事情에 精通하고잇는 池田君이 知事로잇는것은 大端히 조흔일로 나의主唱하는 內鮮一體의 實現에對하여도 여러가지 實例를드는데 이等詳細한것은 歸城하여 發表하여주기로되어잇다

다음總督은 第二次人事異動 新聞統制 金融政策確立等에 對하야 大要左와如히 答하엿다 第二次 人事異動이란 六日發令의 外事課長의 任命을 가르킨것으로서 이以上의 異動은 絶對로업다 新聞統制에 對하야는 內地에서나 朝鮮에서도 滿洲의 弘報協會와 가튼것을 맨들지안는가하는 質問이잇스나 朝鮮은 新聞統一問題과 當分間으로는 新聞을 統一制限할 必要가 잇다고는 생각지안는다 金融政策의 確立에對하야는 여러가지 重要한 協議를 行하고왓는데 具體的인 事實은 아직發表할수업다 그러나 朝鮮銀行券을 廢止하야 直時 日本銀行券으로 統合한다는 가튼일은업다 朝鮮經濟體系 確立이라는 點이 決定되야 上 雙方의聯絡을 協力함에 잇슴으로 主催者나 開催地等은 問題가안된다 明年度豫算編成에 對하야는 來二十一日 開催되는中央經濟會議에 出席할 大野政務總監이 萬事協議를 行하기로되엿다

士官學校分科新設 空軍의幹部를養成

【東京電話同盟】空軍充實을 目的하는 陸軍에서는 航空兵幹部의 教育擴充에 勇斷하고잇는바今般士官學校在學의 航空兵科의士官候補生에 對한 教育에 劃期的 大改革을 行하기로하고埼玉縣入間川町附近에 陸軍本科士官學校航空分校를 新設하기로決定하고이미 敷地를 買收하엿다 同分校는 飛行場格納庫 其他航空教育에 關한모든 新設備施設하야 日本陸軍의 新式空軍의 幹部를 養成에 完璧을 期할터인데 近近建設工事에着手할 豫定이다 또 이計畫은 將來의『空軍士官學校』의 基礎로 될것이라고 觀測되는바 完成하는날에는 空軍의 練成上多大한偉力을 發揮할것이라고 期待되다

第六次金現送 五千萬圓으로內定

【東京電話同盟】第五次金現送五千萬圓은 六日第三回積出로 完了되엿는데 이것으로 第一次金現送以來 總額二億七千萬圓에達하엿스나 一方貿易의 入超로보아 繼續하야 第六次分約五千萬圓의 金現送을 行하기로 內定하엿다

桂珖淳氏榮轉 拓務省事務官으로

咸南保安課長 桂珖淳氏는 今回拓務省事務官으로 破格의 大榮轉이되어 이미 發令되엿는데同氏는 昭和六年東大法科를 卒業한後 三年만에 高等文官試驗에合格하얏다 그리하야 平康郡守 城州郡守를 歷任한後 昨秋咸南保安課長에 榮轉하얏든바今回總督府에서 拓務省과 事務連絡의 敏活과 朝鮮人官吏를積極的으로 登用하는 新方針에서 總督府人事行政의 처음되는試金石으로拔擢되엿다 當年二十九歲의 前途有望한靑年官吏이다

南總督의任婿 新外事課長松澤氏

相川外事課長은 宮崎縣知事로 轉出되여 이미發令되엿거니와外事課長後任에는 松澤農務課長이 昇進될모양이며農務課長後任에는 美根審議室事務官이榮轉하기로決定되엿다그런데松澤氏는南總督의 姪婿로大正八年東大法科出身이다

소맨、우동、冷豆腐 其他여러가지반찬에

今新兵かし (고조가루)

月美人印 製造本舖 合名會社 黑川與兵衛商店 大阪·天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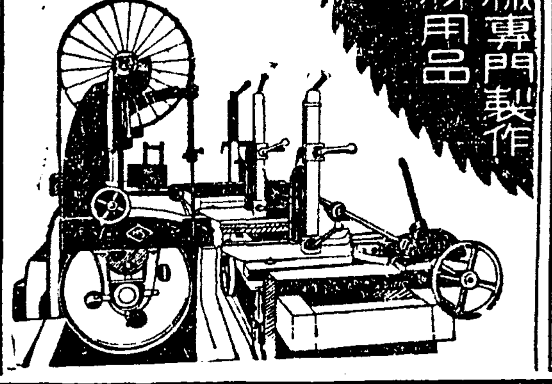
朝鮮向本綢、人絹、綿布、交織、
人絹紗物類 花柄五枚朱子 人絹ボイル 本絹紗物
大阪市南區長堀橋交叉點西二丁
合名會社 森田嘉商店

へーヤネツト
陳列棚付特賣
A 二十一圓
B 二十五圓
內容書進呈
株式會社 馬場物商店
大阪市南久寶寺町二
振替大阪八○八二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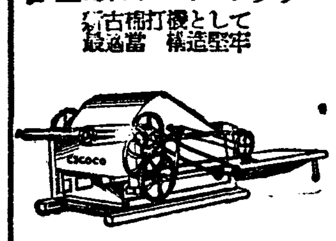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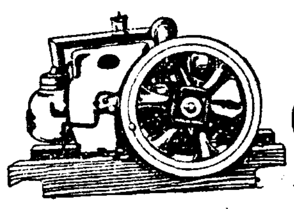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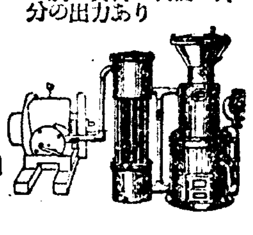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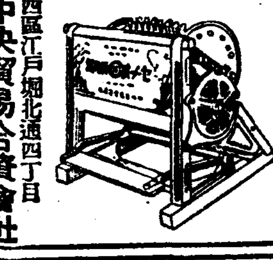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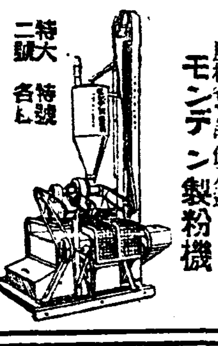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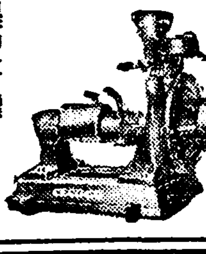
人絹綿布端切各種卸
◎モスリン綿ネル、絹ボプリン本セル金巾、四綾、朱子、人絹
新規小賣開業者에게는懇切히指導합니다
大阪市南區瓦屋橋東詰大阪南局第一三三號函
商報送呈見本은五十錢要(切手)
南津村合資會社
電話南二四八九
振替大阪一二三八三番

サンコウ
噴霧塗裝機

商報進呈
三黃商會
大阪市西區立賣堀南通四丁目 電話新町二一三六番
工場 大阪市東區空堀通三丁目

各種製材木工機械專門製作
調帶鋸工具類製材用品
直輸入商
商報呈
細田商會合資會社
大阪市西區松島町二丁目二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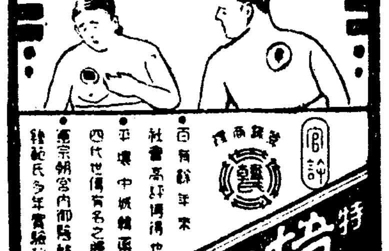
機械ト工具製造卸
大阪市西區立賣堀北通四丁目
八木機械工具合名會社
電話新町二六○四 振替大阪三九一四九番
商店工場二限リカタログ呈

機綿製牌鹿
各種鐵製 木製あり
打綿機として古綿打 構造堅牢 最適當

ウエム重油發動機
取扱簡單 一馬型 重油完全燃燒

木炭發動機
精米·製材·農工用最適
一馬力より十馬力迄
木炭一貫目で石油二升分の出力あり

新型五—六馬力 八—十馬力
稻扱機 鐵製木製 構造堅牢 價格低廉

モンデン製粉機 農林省審査一位入選
特大 二號 特號 各種

揚水ポンプ サンドポンプ 各種在庫

大阪市西區江戶堀北通四丁目
中央貿易合資會社
電話土佐堀二三六一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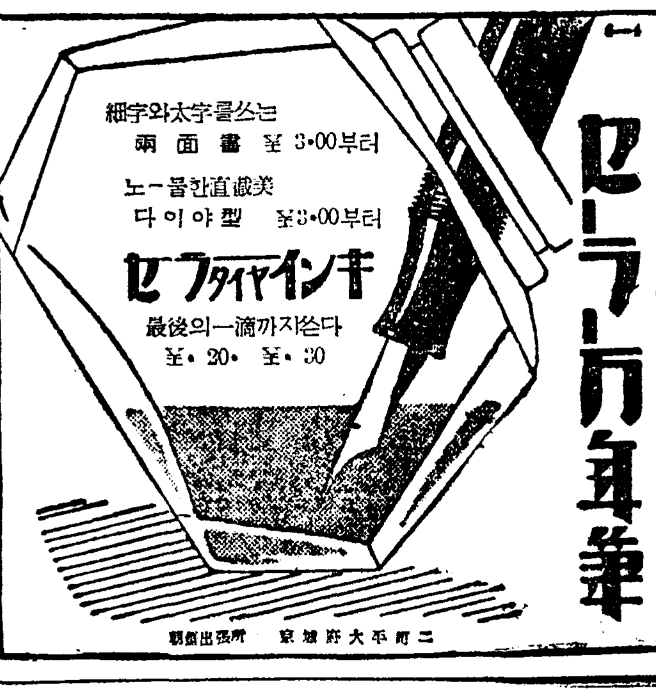
男子의資格이업는부끄러운
性器短小의煩惱
弱小强大性과性愛增進法

金銀 地金分析賣買
小口專門
水谷金銀舖
京城黃金町黃金座前

癩病

萬腫速治

特許 韓氏膏藥
HANSHIKOYAK
製造本舖 平壤府港町九十四番地
中城韓藥局

猩、狐、狼、獐、鶴鷺、鷹、其他活鳥、獸高價買入
萬國鳥獸問屋
東京淺草公園入口
猪料理山口屋
鳥獸仕入部

セーラー万年筆


セーラー万年筆 特約店 楠商店
京城鍾路二丁目二十七番地
電話光化門二九六番
カタロク進呈

문둥병
大阪市新川三丁目
大福堂本店

矢野

矢野テント商會

圓滿引繼는疑問?

北長老宣敎會總會表裏兩面記 ⑤

그러면 북장로선교회 경영에 속하는 여러학교의 전도를 이번총회의 결의에비치워볼때 과연조선인의 손에 원만히 인계되여 살릴수잇게될것이냐 그대로 문을닷아주다시피게될것이냐 어떠케 판결을하여야 옳을것이냐 하는 결론을 어더야할것이다 조선의 교육계 현상으로보아 교육기관이 각가지로부족한 이때인만큼 어느하나를 막론하고 살리어 나가지안흐면 안될것은 물론이다 만일 지금문제되는것과 앞흐로문제될것등의새학교까지 합하면 전문학교와 남녀중등학교를 합하여모다 열개소이니 이것이 전부 조만간에 문을다치게된다면 우리교육계에밋는 영향은 얼마나 큰것일까 극히 비참하려사적사실이될것이다 당장의손에도 손해러니와 수십년간육두고자기네의 자제를 위하야 또는 자기네의 문화를 위하여 공헌만흔괴관의문을 다치게되는것을 그저 바라만보고 잇게되다면 이에서 더 큰 조선사람의 치욕은 업을것이다

◇

또 미국선교사측으로 볼때에도 지금까지 반세기의 오랜세월을두고 만흔 인재와 재산을 던지어 건설하여온 사업기관을 이제 부득이한 사정이라하야 인계를 한다고는 할지언정 이왕 조선인의 교육을위하여 건설하엿든것인이상 그가치 무자비하게도 문을 다치어 그간인연깁흔 관계를 돌보지안코 무참한 라격을 주지안흐면 안되도록 절실할리유는 어데잇슬가 좀더유예를두고 조선인의 사업을 북도두어주려는 호의를 한거름더 나가서 열매맷게는 못해주겟는가? 물으기는 하거니와 선교오십년에 조선에남긴 최대의선물이잇다면 이모든교육기관이될것이고 이교육기관을 거더치운다면 선교사업의조선인사회에대한 민중적 려사적기초는 업서진다고 보아도 과언이아닐것이다 이것이 오늘 조선인의 교육기관에 대한 절대적 요구이고 또 열망이기때문인것이다

◇

이상에 론한바와가티 선교회측의 태도는 상당히 강경하다。 아직은 태도를 표면에 투철히 나타나지안흔터임으로 미리단언하기는피하나 지금까지의 경과로보아 내심은 형식으로만은 조선인에게 인계하여줄듯이 조건을가추어노코 실제에 들어가서는 극히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야 반듯이 조선인에게 인계를하지안흐면 안될리유는업다는것이 아닌가 우리는 지금까지 선교사업을 통하여 조선에 남긴 선교회의 공적을 몰라보려는 자가 아님으로 일상 선교회의 태도를 헐뜯는것은 아니다 정당히 과거공적을 평가하는동시에 아프로의 태도에도 정당히 요구할것은 요구하고 감사할것은 감사하려는자이다 그러나 이번총회의 결의는 우리의 기대와는 너머도거리가 잇는 소극적태도임에 비판지안흘수가 업다 이러케비판하는것은 단지 우리뿐이아니고 폐교파와 대립상태에 잇는 인퇴파의 선교사들도 역시 비판하는터이다

◇

이때에 우리들에게 생각케하는것이잇다 즉선교사단은 조선인을 어떠케보고잇는가 하는것이다 과거에 잇서서 그들은조선인에게 얼마나한 정도의 신용을 두엇고 촉망을 가젓다던가 또 그들이 교제한 교회내의인물은 그들 선교사단에게 신임과촉망을 어느 정도로 비롯한하엿섯던가 하는것이다 이와동시에 교회내의 조선인들로서는 그들선교사와 오래두고 사귀는동안 만일의경우에 렴하여 그들을움직일만한 신의깁흔교제를하여온사람이 적엇든것만은사실이아닌가십다 물론 교회내에도인물이 업슴은아니다 이번문제에대해서도 만히 로력하여온 사람이잇섯다 그러나 이러한중대문제가 전조선적으로 중대화한나국에처하야 문제가 이처럼 비판상태로만 빼지는것을 아주 구해내지못한다면 수십년래로선교단파 밀접한관게에 잇든각지의교회인들이 그들파신앙을 좋하여긴본개인적 교제도 적엇고 교회로서는 좋은점도무엇도업섯든것을종영하는것이라고 볼수밧게 업다 특히 북장로회 교회에잇서서 전교회가 조선의 민중을 배경으로 정치적 결성을 할수 잇슬만큼 되여잇서야 할것이다 보매 교회인 사이에는 선교사측의 사정도깁히 살펴보지도못하고 공연히 제소견대로만 그려러니하고국외로하고잇는 공기도만타 그러나 때는이미 비판상태에 잇는것이다 선고바든몸 변신이월 이십일까지에 우선경신、개성、신명세학교는 어떠케해서 인게방법이 안출될수잇슬것인가 극히 주목되는바이다 만일 이세학교의 문제가 바로안된다면 그여의것은 더문제도안될것을 각오하여야 할것이다 이미평양의 숭실계등 세학교의운명도걸어가는길이 너머비참하거던。

—끗—

新規學校創設을 受繼後援會勸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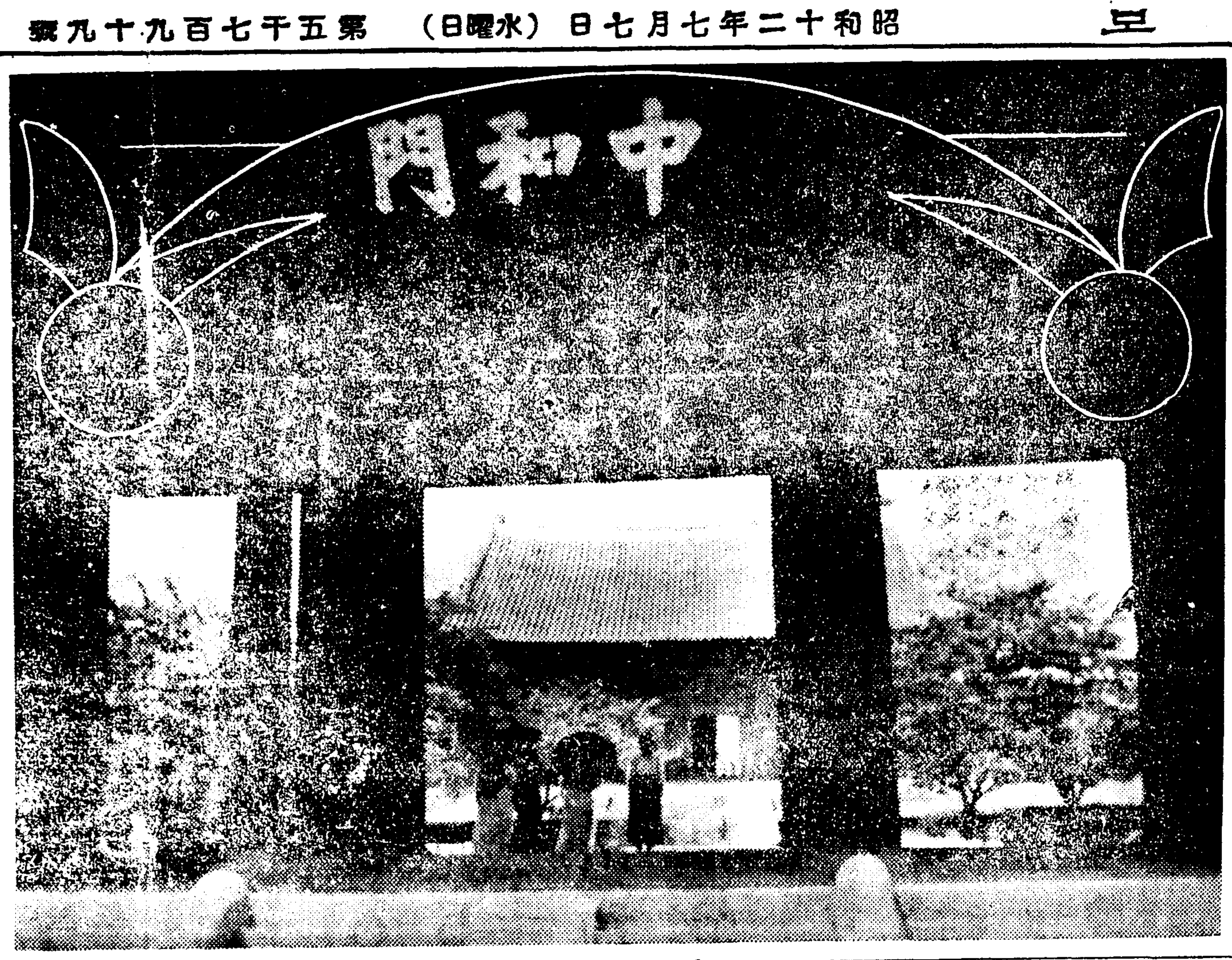
韓氏는寄附의根本義가다르다고即答拒絶

崇實三校寄附金取消의後聞

【平壤支局電話】 기보=숭실전문학교와 숭의녀학교를 인계하기 위하야 칠십만원이라는거금을내여노앗든한인보(韓仁輔)씨는 인계해줄당국인선교회측태도의 애매한데 지처서 기부취소를 통고하자 관게자들은 물론 일반사회의 충동은 실로커서 그선후처치에 당황하고잇든터이다이 문제에 대하야 숭실삼교수계후원회(崇實三校受繼後援會) 에서는 직시로 도당국을 방문하고 당국태도를 타진하는동시에 한인보씨를 차저서 본래에 정했든 두학교의인계가 여의치못할때는 칠십만원으로새학교를 설립하는것이어떠냐는권고를하엿든바 한인보씨로서는 려사잇는학교를죽이지만코 살려서인게한다는의미와 다시새로운학교를 창설한다는의미는 근본적으로달러 고려할여지가잇고 또재령문제만하드라도 어미예정한 칠십만원으로서새학교의창설은 불가능하다는 소견으로 이상임중더연구를 해보겟다고 말미를구하엿다

이와동시에 숭실을 마러서 경영하기로된 리춘섭(李春燮)씨에게는 학교의신규창설을 권하엿스나 역시삼십만원자금은 숭실인계의 최저한도 금액이요 이로서중등학교의 신규창설은도저히 불가능한일이라고하야 형세를관망키로하엿다

이와가티 숭실세학교는 선교회로부터 인계를한다는것은 한씨가기부를 취소한오늘에 적은 기대나마둘수업고 그러타고 이미승락된 기부로 새학교를창설한다는것도 여러가지 관련으로 미루어 어려운문제로 일반의초조를사고잇다



古宮의幽景! (昨日德壽宮에서)

膨脹하는大京城食率

出生 八千百九名 死亡 三千六百名

今年一月부터 五個月間統計

그늘미테숨은愛慾의結晶과 天生孤獨의棄兒도百十名!

경성부호적과(戶籍課)에서 금년일월부터 오월까지 최근에집합한 통계를 보면다섯달안에부내에서 출생한 사람의 수효는팔천일백구명이며 사망한 사람은 삼천륙백삼명인데 출생한 사람이 사망한 사람보다 사천오백여섯명이 더만허서 대경성식구가 점점 부러가는것을 알수잇다 출생자 가운데서

▲적자(嫡子)는 칠천팔백사십일명이며

▲서자(庶子)는 이백한명이고

▲사생자(私生子)는 륙십칠명이엿다

이와가티 서자와 사생자의출생수효도 적지안흔것으로 보아서 넓은이장안에는 남의애첩으로 혹은 제이부인으로 그늘에 숨어서 사는 여자들도 상당한 만흔것을 짐작할수잇다

그러고 악착한 운명에 태여나서 이인간세상에 나오자마자 애처럽게도 길거리나 남의집대문깐에 헌신짝가티 내여버림을 바든 아이도 사십삼명이 되며 서 서울 뒷골목에는 이가튼인도에 어그러진 죄를 짓고 숨어 사는 여자도 역시 만흠을 추측할수잇다

佳約 千七百餘件 破鏡 百二十餘件

일월부터 오월까지 다섯달동안에 경성부내에서 원앙의쌍을 지여 인생일대에 가장 기쁜혼인을한사람은 일천칠백륙십오명이며 부내에살든 사람으로서다른지방으로 시집간사람은 오백칠십삼명이나되는데 화려한 서울에살든 아가씨들도 배필을만나 결혼하게되면 강원도산중이라도 어데라도 실타하지안코백년해로할데리면업을따라 시집을 가게되엇슴을 알수잇다

결혼식을 거행할 때에는 산과하해를두고 구든맹세를하고 매젓든 혼인도 서로 참아갈수 업는 사정으로말미암아 중도에서 서로 리혼(離婚)을해버린 사람도 열백이십이명이나 잇섯는데 그가운데서 협의리혼은 일백십삼명이고 재판리혼은 구명이엿다

少婦出家

륙일오전열한시십오분쯤 부내한강통(漢江通)삼번지 환금(丸金)양복점주 김종수(金鍾秀)의처 김복연(金福演)(二七)이가 집을나갓스니 차저달라는 수색원이 룡산서에드러왓는데 소부김복연이가 집을나간 원인은 원래그의남편 김종수가 술을과음하게되여 지난오일밤에도 과음하여 부부싸홈이 시작되엿스며 밀경륙일아츰에 이르러 김종수는 음독자살을하려고 소동을하자 그에놀래인 소부김복연은 횡겁한마음과 남편의주광을 곳치지못할을 비관하야집을나가게되것이라한다

債權者行動에憤慨 拳銃으로脅迫

龍山署犯人嚴調中

륙일오후여섯시반쯤에 부내청엽정(靑葉町)이정목오십칠번지 본산강(本山康)(三七)이라는 사람집에 권총을가진 청년이와서주인을 협박하고잇다는 급보를바든 소관룡산서에서는 곳그자를 서에 붓잡어다가 취조하엿든바 부내대화정(大和町)삼정목오십삽번지에사는 준본정부(樽本正夫)(二三)로 준본이는 작년오월본산에게서 이백원을 취하야섯든데 도모지갑지안흠으로 본산이가 그의 부인만잇는틈에 은닉메달등을 빼아서가지고갓것에 분개하야 그가티 권총을가지고 협박을 한것이라한다

看板專門竊盜

부내락원정(樂園町)칠십이번지에사는 최홍남(崔興男)(三二)이는 지난륙월십칠일 고시정(古市町)사십삼번지 동방과학흥업회사(東邦科學興業會社)의 놋으로만든간판(時價十一圓)을훔친것을 비롯하야 시내각병원회사등에서 열아홉개를 훔처서 고물상에헐가로팔어먹고 오일본정서원에게붓잡혓다 한다

自轉車에少女切脚

사일오전열시삼십분쯤에 부내영락정(永樂町)이정목 사십삼번지

自動車가背進 앗! 三名負傷

昨日旭町의珍事故

륙일오후여섯시쯤에 부내욱정(旭町) 일정목일백십칠번지부근에서 삼정물산(三井物産)가사무소에손님을 태우고온 자동차를 운전수가자리업는틈에 그사무소소사 리유진(李裕鎭)(二)이가 작난을 하는중 작가 약십미돌가량 배진하야 근처에잇든 욱정일정목 이백이번지거주 김홍기(金洪基)(三)는 머리에 약십일간치료를 요할상처를 입엇스며 기타일본내지인 소년두명이 가벼운상처를입엇다고한다

今日小暑

칠일은 음력으로 오월이십구일로 소서(小暑)절이다 오는십이일의 초복(初伏)을압두고 이로부터 본격적 더위가 등장하야 사람들을 덥게할터이다 찬수박등 여름과실이 무르녹어 더위에목마른사람의 미각을 놀래게할터이나 적리、장질부사등 모든소화기병이 한창성세할때이니 일반은 특별히 음식물에 주의해야될때이다

搜査願二件

오일 오전에 종로서에드러온 수색원이건

▲부내리태원정(梨泰院町)이백이십오번지 야채상 리윤덕(李允德)의 아버지 리연하(李演夏)(六)는 지난칠일에 봉익정(鳳翼町) 리중익(李重益)방에 갓다가 이입에 귀가한다고나가서는데아직도라오지안는다고

▲부내 관동정(貫洞町)육십이번지에사는 리창효(李昌孝)의생질인 리재현(李在鉉)(三)은 벙어리인데 삼일밤에집을 나가서 드러오지안는다고 차저달라는것이다

歸省列車增發

夏休學生들을爲하야

경기도 학무과안에 잇는보도연맹(保導聯盟)에서는 하기방학(夏期放學)날이 가까워옴에따라 시내에서 공부하던 유천여명의 학생이방학날 지방으로내려가느라고 대혼잡을 이룰것을 미리짐작하고 철도국(鐵道局)과연락하여가지고 칠월이십일날경부(京釜)경의(京義)호남(湖南)함경(咸鏡)네선에 임시열차한대식합게 네대를 증발하기로 되엿다 부산(釜山)행임시 열차는 오후여덟시 삼분에 떠나고 목포(木浦)행은 오후아홉시삼십오분 평양(平壤)행은 오후여덜시오십분 성진(城津)행은 오후 열시삼분이다 이날 경성역전에 학생의 바다를 이룰것으로 특히 역전에 『텐트』를 처서 귀향학생의 임시대합소(待合所)까지 설비하리라고한다

大規模쇠도적

준전체제(準戰體制)하에 중공업(重工業)게가 비상한 활기를띄운 소화십일년하반기여래 철물가고등에 따르는 쇠도적이 발호하야 시내는물론전조선적으로 경찰을괴롭게 굴고잇섯는데 오일밤부내 본정서에는 또다시 대규모의 철물도적두명이 체포되엿다

오일본정서 내등(內藤)김(金)량형사가 신당정(新堂町)부근을 밀행하는중 부근마차세놋는집에 거동이수상한 청년두명이 매일가티 마차ㅡ를빌려가지고 어디론지가나 행방이묘연함뿐안이라 도라올때는 구루마세돈을 잘낸다는말을 듯고 여러가지로 조사한결과 황금정(黃金町) 삼정목 산전철물상 (山田鐵物商)에서 장품으로 인정되는 『레일』 열세개를 발견하고 이날 저녁 전기 신당정에 역시 내용모를 일을 하고 도라오든 두청년을 체포하엿는데 이자들은 신설정(新設町)사는홍순팔(洪淳八)(三二)이라는 전과일범과 가튼동리봉원식(奉元植)으로 작년년말이래 내무국 경성토목출장소(內務局京城土木出張所) 뚝섬(纛島)공사장 경춘철도(京春鐵道)공사장 기타토목공사장을 전문으로 『레일』과 차륜(車輪)을 도적한것을 자백하엿는데 그 피해가약오천원이 나된다고한다

盜癖잇는 百貨店員兩名

本町署에서引致取調中

도벽잇는 백화점원두명을 본정서에서 체포─▲부내남산정(南山町)이정목 이십륙번지에사는삼중정(三中井)백화점점원 김수운(金洙雲)(二二)이는 지난이월십일오후네시쯤에 그백화점사층양복부에서 양복한벌을 훔처가지고 친구에게 돌려내보내서 후에이것을 전당잡혀 랑비하엿는데오일그가 본정서에 체포될때까지 양복여섯벌을 전기와가튼 방법으로 훔처내다한다

▲부내초음정(初音町)팔십칠번지 초음『아파─트』십일호실에잇는 평전(平田)백화점점원 생구태랑(生駒太郎)(二五)은 오월가튼『아파─트』구호실에 잇는 국지(菊池)(二四)라는여급의 저금통장을 훔처서인장을 위조하여가지고 일백오십원을 차저썻다가여날오후아홉시쯤 본정서원에게체포되엿다한다

神戶市電總罷業

組合幹部復職要求交涉決裂로

市內交通混亂狀態

【神戶電話同盟】 신호시전종업원조합(神戶市電從業員組合)은 륙일새벽에 드디어 일제히 총파업을결행하얏는데 직접원인은지난오월말일에 귀청운동에 의한 중복지출로서 륙백수당결원독하얏슬때에 책임자로서 평전(平田)위원장이하 사명을 징벌해고(懲罰解雇)한데대하야 조합측으로부터 복직요구를 제시하고 교섭한결과 드디어결렬된때문이다 이날 오전한시사십오분 총파업의 지령이 나리자 남녀종업원 일천오백명은 시내네 차고(車庫)에 금족을당하얏는데 그중륙백오십명은 오전팔시반과 시시출발의 섭양상선(攝陽商船)으로 담로주본(淡路洲本)에향하야 시전측의 교란행작에서 도피하얏다 한편으로시전계에서는 파업참가외종업원 삼백명 간부직원 교습생등이 백오십명을 총동원하야 상십사대의 전차에 정원백명 내지삼명을 면동시켜 『라쉬아워』에비하얏스나 각정류장에는 출근하는시민이 구름가티 모혀 시내교통은 대혼잡에 빠젓다

蹴球代表候補

明日發富士山麓에

世界蹴球選手權大會와 東洋大會에出場시킬 日本蹴球代表候補三十九名中에 朝鮮에서 金容植(早大) 康基[illegible](全普成) 裵宗鎬(全普成) 李裕瀅(全延專) 朴圭禎(普專)等五選手가選拔되엿다함은 旣報한바어니와 一行은來十日부터富士山麓山中湖畔에서 열리는 講習會에參與코저 明八日午後二時四十分 京城驛發列車로 出發할터이라는바 康君만은 勤務關係로 아직未定이라한다

特約店募集
古ネクタイは甦る 新品買入不要
日ヤケシミ付、アカヨゴレ、古柄等が全然流行色と柄に 新品同樣染替へらる
時世が生んだ新事業 小資本開業最適
鮮滿に特約募集中 早い者勝
說明書要三錢郵券 實物見本要四十錢郵券
外交員募集
京城醫學專門學校前 文化商工會社 化學工藝部

寫眞은 ホルモーゼ를創製하신 中井醫學博士와 本研究所顧問南先生께서藥物研究次朝鮮旅行時의紀念撮影

性慾學界의 大權威인

醫學博士中井先生께서

多年苦心研究하든結果

를遂發見創製함

生殖機能絶對強壯劑ホルモーゼ

老少男女를 勿論하고 人生幸福에 關心을가진사람은 모름즉이 多年間研究하야 完成創製의大業에 成功한 性慾學界의하나밧게업는 大學者中井醫學博士의말을드르라。아래博士의말슴을記錄함(係)

創製者 中井醫學博士談

ホルモーゼ(For-Mose)는余의多年苦心研究의結果完成한純性的强壯劑이다

ホルモーゼ는 東洋固有의哺乳動物의 臟器中에서生殖腺홀몬의 『엣센스』(Essens)를 化學的으로抽出하는데 成功한것이다

ホルモーゼ의 特長은人體에잇서서의 生殖腺의內分泌作用을 亢進식히며 生殖器障碍를잘治癒식혀서 生殖機能作用을 復活旺盛케하는 同時에 活潑한 作用을持續식히는데 偉大한 效果가잇는것을 發現하게되엿다

ホルモーゼ의 服用에依하야 性的不滿을 一掃하고 濃潮한元氣와精力을어더心身共히 完然히절머지며 人生이再逢春하야힘잇는 人生歡喜를把握하야서 人生의 幸福을滿喫할수잇슴을絶對로 밋어疑心치안는바이다

生殖器障害에 苦惱하는者와 精力의增進을 바래는者는 男性、女性을 勿論하고밧듯이 本劑의服用이 가장肝要할줄안다 以上

國際ホルモン研究所長談

男女를勿論하고 또 老年、中年、靑年을 莫論하고 모─든疾患의 原因이性慾에잇는가하면 結局根本原因을차저내면 人體內에 홀몬이 缺乏한것임은이제 새삼스러히말할必要 가업거니와이제 其原因을차저내인지는 이미오래엿지만 重要한其結果를찻지못하여 如何히하면 이難問題를 解決하야 生殖器障碍、生殖器發育不全、不能、早老其他精力減退等홀몬缺乏으로因한 疾病을根治할수잇슬가하는것이 醫學界의 重大問題가되물은 勿論學者들이 全精力을바처이硏究에 苦心하든끄레 斯界의 大權威인 中井醫學博士께서 苦心多年에 大成功을하엿슴은 全人類를드러서 祝福하지안흐면 안될일이고 特別히其研究가 우리東洋사람을 標準한 만치東洋사람에게는 百發百中의 效力이잇다고하니 우리는이 中井醫學博士의 苦心의程度도알겟지만 研究者의目的이 人類의幸福을 爲하야 多年苦心한것이니만치 하로빨리服用하야 人生幸福을 누리는것이 即研究者의게對한 報恩인줄알며 弊研究所에서도 『홀몬』에對하야 研究하여오던中 이번中井先生의發明한 ホルモーゼ를實地로硏究實驗해본 結果果然世界에서 처음보는大成功品이기로 率先하야 中井先生製品을 引受一般希望者의게 頒布키로되엿다 以上

人生이늙는理由

人生이 늙는理由는 體內에잇는生殖腺『홀몬』(內分泌)減退하기對向이다 即 다시 말하면 性慾이 減退하면할사록人生은 빨리늙는것이다 그럼으로 體力에『홀몬』이 充滿해잇스면靑春의幸福을 맛보은勿論늙지도 안코 또늙은사람은 젊어지고 同時에 靑春時代와가티 人生의歡樂을맛볼수잇다 靑年의體內에『홀몬』이 缺乏은人生의自殺과갓다 또산송장과 무엇이 다르랴!

男女老少를 勿論하고體內에『홀몬』의 補充이야말로生命線이다

靑年 人生의 最大幸福期에잇는 靑春時代에性慾不足性器發育不全早漏不能症生殖器故障陰萎等으로 男性은 女性의게女性은 男性의게서로 不滿을늣기고勿論自己自身이恒常快感의幸福을엇지못하는 男女는百發百中

老年 四十以上에벌서 早老症이생겨서 異性의단맛을못보고 늙는것만한탄하는분들은 服用二日이면 更少年의깃쁨을엇게되며 精力이强하야 지고記憶力이 强하여집니다

房事過度로恒常머리가 무겁고記憶力이업서지며 頭痛이나고 憂鬱症이나고 神經衰弱이되는분은服用하면할수록 完快하여저서 人生의幸福을맛보게됨

服藥報告實例의一部

服藥三日재性慾이充滿
朝鮮平北慈城 金景瑞

生은三十一歲의 男子이온대女性을 對하야도 아모 性感을 엇지 못할뿐더러 無理로 性慾이 업는것을 女性을 關係하면 翌日에는 또머리가 무겁고하야 苦痛中이번에貴所에서 頒布하는 中井博士의 藥을 三日재服用하니 머리는깨긋해지며 性慾이 倍前하여집니다 또六○錠만곳보내주소서

一週日服用하니마음도젊어저
朝鮮京城府城北町四六 柳喜暻

貴ホルモーゼ를 一週日재服用햇드니 性慾이倍前하여지고 四十이넘은나로서 心身共히 二十代의靑年時代와갓소이다。其間은或妻와 同房하면四五日은 氣運이업고 머리가무겁고하드니 其藥을服用한지 一週日이되니 全然그런症勢가 업서지며 性慾만强하야집니다 붓그러운말이지만 同房이자저집니다 後日또注文하겟나니다

ホルモーゼ(FORMOSE)의適應症

ホルモーゼ는어 떤病에百發百中인가左記諸病에 써보면안다

(男性用) 陰萎(不能症)早漏、遺精、夢精、健忘症、生殖器發育障碍、兒童攝生殖官能耗弱短小症、性慾減退、早老症、更年期障碍神經衰弱、憂鬱症、自瀆障害、毛根發育不全에依한頭髮薄稀脫毛症等

(女性用) 兒童攝不姙症、子宮發育不全、乳房發育不良、性慾缺乏、不感症、肥滿病又는其他의新陳代謝障碍에잇서서性慾的障碍、更年性障碍、無月經、神經衰弱、히스테리、憂鬱症、月經困難、健忘症及毛根發育不全에依한頭髮薄稀脫毛症等

▲藥 價▼
十日分 四圓八十錢 二十日分 九圓
一個月分 十三圓 二個日分德用品 二十圓
送料四十二錢

東京市向島區東三丁目十六
國際ホルモン研究所
振替口座東京一五一九四○番

洋服

夏物背廣三揃之部

生地 (プレスコ・ポーラ・高級品 色・ネズミ・茶・ アルパカ七分裏拔本絹)

A 金二三、五○
B 金二二、七五
G 金二○、八○
D 金一八、六五

右品은 高級仕立注文服보담도 優秀함은例外에 東洋第一가는 現下東京에서 今夏 最新流行スタイル紳士、有志、現代靑年向 最適品

一般大衆向 三揃夏洋服部

生地 (サンマロス・アムゼン ミルクポーラ・チロツト色ネズミ・茶・ アルパカ七分裏拔本絹)

ア 金一九、七五
イ 金一八、○五
ウ 金一六、九○
エ 金一三、八○
オ 金一二、九九
カ 金一○、○七
キ 金九、八○
ク 金八、七五

折襟 上衣之部

▲紺・黑・セルヒトヘ ヘリトリ 金七、五○ 金八、七五
黑綾カシミヤ上來子本絹揃 金九、八○ 金一一、七五

ズボンノ部

白ギヤバ及白セル A 六、五○ B 七、八○

但 註文하실때에는 身長、胸圍、年齡、職業等을 詳細히 記入하고 住所姓名도 明白하게 記入하시요

註文은葉書로申込하라 代引으로 應함 註文高의 三割以上先金을 納入하면 送料無料 店員擔內金이업는註文은 送料一圓二十五錢을 註文主가 負擔한다

東京市向島區吾嬬町東三丁目
クラウン工業所
振替東京三三五○三番

山禽水鳥의羽毛 大量注文到來

米國에서잇는대로보내라고! 可惜타大量蒐集困難

山禽、水鳥等 羽毛의 海外注文到來—五日 京城府蓬萊町에잇는 朝鮮副業協會에 米國紐育市 某有力한貿易商으로부터 朝鮮產 山禽과水鳥의 羽毛를 잇는대로 살터이니 보내달라는 案內狀이왓다 突然한 注文임으로 同協會에서는 準備도업고하여서 各處에 蒐集할手配를하는同時에. 目下 各地에 生產狀況을 調査中이라는데 現在의狀態로는 大量蒐集이 困難한形勢에 잇서 焦燥하고잇다한다 從來 山禽、水鳥의 羽毛는 寢具(방석)玩具、肥料等에 使用하얏는데 米國의그와가튼 大量需要에 잇서서는 그用途가 무엇인지는알수업스나 아마 工藝品製作에 使用하는모양으로 從來 그다지 重要視하지안튼 山禽、水鳥의 羽毛는 今後相當히 貴重하게 需要가잇스리라고한다

七萬箱目標 鹽鰮輸出을計畫

品質向上·販路擴張

朝鮮產鹽鰮의 對外輸出은 事變을 轉機로急激히 勃興하야其後 總督府의 出荷獎勵와 三菱商事의 統制販賣에 依하야 急速히 市場을擴大하야 昨十一年度에는 드듸여前年의 一萬八千函을 倍增하야 三萬六千函을突破하고 北中을 最大市場으로東滿 南滿 南中 南洋에도 新進出을 開始하엿다 이潮流에乘하야 總督府에서도 더욱 이輸出振興計畫을 講究하고잇고 三菱에서도 積極的計畫을 進行하고잇는바 今十二年度에는 다시前年의 取扱數量의 倍大增加인七萬箱을 目標로 製品向上을 圖하야 販路開拓에 注力하게되엇다 其具體的 協議는 水產檢查會議에 뒤이어 總督府各道及三菱間에서 協議하기로되엿다 그런데 近年의 出荷數量은 昭和八年一萬三千箱 九年一萬四千箱 十年一萬八千箱 十一年三萬六千箱이다

石炭과煉炭 價格引上表面化

繼續되는 軍擴景氣의 昂進으로今春의 朝鮮內石炭需要는 相當히 窮屈케되리라고 보고 探炭業者高그他로 價格도 相當한高價가 豫想되는 狀況이므로需要期에入하기前에 爲先 煉炭値上이 表面化하고잇다

即 煉炭은 爲先 官製가 値上의 先鋒이되어 京城에서 廷當一圓三十錢 平壤에서 同一圓四十錢의 値上을 實行하고 뒤니어 朝鮮煉炭에서도 이와步調를 마추어 値上을 當局에 申請中으로 一兩日後부터 値上實施豫定이다 値上理由는 炭價의 二圓五十錢以上値上과「피치」의七圓高等이다

一方 有煙炭은 日本內地의入荷減 滿洲炭同上으로 相當한大幅値上이 豫想되고 無煙炭도必然的으로 値上될것으로 此燃料高의 現象은 重視되고잇다

下期商品界展望 (四)

人絹 樂悲材料錯綜

前途多少波瀾難免

오래동안 混亂不況時代를 繼續하든 人絹界는 昨春에이르러 아웃트사이더─會社의 問題도落着되고 最後까지 아웃트사이더─로서 聯合會外에잇든 昭和、太陽兩社도 商工省의 裁定에依하야 昨年八、九月에 各其聯合會에 加盟되어 이에 完全한業界의 統制가 確立되어 爾來人絹界의 情勢는 一步 一步好轉하고잇다

그러고 需要의 堅實한 增勢는 需給關係를 漸次로 改善하고 統制確立에 依하야 急激한 增產의 不安도 解消되기때문에 그製品市場도 顯著히 恢復步調를보이고잇다

이리하야 採算關係에 잇서서 人絹會社도 漸次 黎明기에들게되고 또 昨秋來 財政인플레의顯現은 諸物價의 先高人氣를 釀成하야 人絹市價도 그에 追隨하야 時勢의 煥發을 보게되엇다 今年에드러와서도 이傾向은 더욱 激甚되어 大體로 八十圓臺를 突破한바 이는 昨年의低價에比하면 實로三十圓가량이나 올랏다

이에따라서 人絹會社의 業績은 十二年上半期에 各其增配를 하는等 好況時代를 演出하얏고 下半期 各社의業績도 製品의先約이만흐며 原料도「팔프」를 비롯하야 藥品類는 低價時代의約定品으로 充分히 繰業할수잇다함으로 依然 好調를 示하리라고한다

以上과가티보면 人絹界는 無難好況時代에 處하얏다고보겟스나 左와如한 難問題가잇는것도 看過할수업는일이다

即 印度를 비롯하야 輸入國의 關稅引上 配當制採用等 輸入防遏할 惡材料라하지안흘수업다 이에對하야 人絹聯合會에서는 六月二十八日에 臨時總會를열고 今年十一月以降 新鍊制限案을可決하얏는데 그內部에 賛否兩派가 對立되어 商工省에 兩派가 各其相反되는 陳情을하고잇슴으로 生產調節에도 相當히 難關이잇는 모양이다

그러나 一部의觀測에 依하면 輸出減은 一時的現狀으로 回復되리라는것 原絲의輸出이 增加되리라는것 인플레景氣에 伴하야 國內消費가 增進되리라는것 製品市價에 對하야서는 綿絲其他의 纖維類의 高價持續과 原價高에 支持되어 큰低落은 업스리라는等의 業觀論도잇스나 前述한바 惡材料가잇는만큼 前途의 多少波瀾은 不免하게되리라한다

이와가티 生產은 漸增傾向에 잇슴에 反하야 輸出은 硬化傾向과 硫酸、二硫化炭素等 諸原料騰貴傾向과 如함은 그前途의 暗影으로 보지안흘수업다 이제 日本全國의 人絹의 生產과 輸出狀況을보면

▲人絹生產 (單位百封度函)

	十二年	十一年	比較增
[illegible]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三月	二六四、八六三	二〇一、〇六六	六三、七九六
四月	二六九、二六〇	二〇七、〇四五	六二、二一七
五月	二二九、五九一	二一七、四四七	一二、一四四
計	一、三一三、一〇〇	九九九、七〇六	三一三、四〇四

▲織物輸出 (千碼)

	十二年	十一年	比較增減(△)
一月	三六、八三二	二〇、〇〇五	一六、八二七
二月	三五、九三六	三八、三六八	△二、四三二
三月	四四、六〇七	四四、四七七	一三〇
四月	三六、九九五	四九、四三三	△一二、四三八
計	一五四、五一九	一六二、三三二	△七、八一三

으로 七百八十一萬三千碼의減少이오

▲原絲輸出 (單位函)

	十二年	十一年	比較增減(△)
一月	三一、七三三	四三、七七九	△一〇、〇四六
二月	三六、三〇六	四七、八七四	△一一、五六八
三月	三三、八九五	四四、八〇四	△一〇、九〇九
四月	四一、三二七	五〇、六五九	△九、三三二
計	一三八、二六一	一八四、九二六	△四六、六六五

寫眞은 人絹製造의一場面

고무工業에도 大資本進出

朝鮮側도對策이必要타하야 販賣會社設置論擡頭

最近、日本고무株式會社는 資本金이 一千萬圓이든것을 一躍倍加하야二千萬圓으로 增資하야 各方面의 旣得商權擁護와 아울러 同社는朝鮮에分工場을 設置하려는 計畫을세우고잇서 今後此等大資本의 朝鮮進出이 注目되게되엇는데 朝鮮고무業界에서는 이에對抗할만한 實力을組成함이 急務라하야 그對策의 하나로 爲先販賣會社를 設置할것이라는 議論이擡頭되고잇다한다

大邱米取引高

【大邱】大邱米穀取引所에서 今年上半期(一月부터六月末까지)의 取引高는 總額八百八十萬三千百石으로 前年同期의 五百二十六萬八百石에 比하면 三百五十四萬二千三百石의 激增을 示하얏는데 實로 大邱米穀取引所創立以來의 新記錄을 지엇다

椒島玉筋魚豐獲

【豐川】玉筋魚의 名產地인 黃海道豐川椒島에서는뜻밧게 近日 玉筋魚가 豐漁이어서 昨年의不漁로 憂愁에 싸워잇든 漁村은 자못 活氣를 뭇하게되엇다

河東棉作

【河東】河東郡內의 今年棉作은 氣候와 雨量이 가장 適當하야서 發芽時로부터 只今까지 例年에 보지못하든 好成績으로 今後의 天候가 이대로만 繼續한다면 段當 百五十斤以上으로 全郡百五十萬斤以上에達하는 新記錄을 지으리라한다

全北道農會斡旋 園藝組合組織?

【全州】全北道農會에서는 完州郡農會와 連絡을 取하야 全州附近에서 生產하는 蔬菜 果實 鷄卵等의 價格에對하야 市內小賣相場에서 元價를調査한後 生產者로부터 直接 家庭에 連絡을 取코저 來十五日午前十時半부터 午後五時까지 新築中인產業獎勵館樓上에서 即賣會를開催하리라는데 今番 即賣會의成績을 보아 未久한將來에는 全州를 中心으로 團體組合을 組織하고 適當한 場所를 定한後 一週一回式 定期的으로 開催할 計畫이라고한다

咸南沿岸五月漁獲

【元山】元山을 爲始하야 咸南沿岸各漁組에서 水揚한 五月中의 總漁獲高는 三十三萬七千二百十圓으로 前月보다 十萬三千二百五十九圓의 增獲이며 其中 第一位가 「가재미」로 七萬二千四百八圓이고 정어리는 三萬四千六百九十六圓이다 그런데 元山漁組의 取扱高는 十一萬九千九十五圓으로 咸南全水產額의三分의一以上을 占領하야 斷然優位를 차지하얏다

咸南高地帶의 亞麻稀有의大作

天候順調로生長良好

【咸興】咸南高地帶農村의 副業作物로主要한 亞麻는 今年度播種期의 降雨와 適當한 降雨暢順調로운天候로 因하야 그成長이 極히 良好하야 現地大槪一尺餘以上三尺三寸까지의 標準型까지 成育하얏다 今年의 作付段別은 甲山三水豐山北靑의 四個郡에 二千四百町步의 廣面積에 達하고잇서未曾有의 好作이豫想되고잇다

春繭好況으로 桑田肥培徹底

忠北養蠶에拍車

【淸州】忠淸北道內 春繭出廻는 掃立枚數에잇서昨年보다二千枚나 減少되엇는데도不拘하고 意外의 出廻大增加를 보게되엿스며 價에잇서도 相當한 高價로서農村經濟上 만흔 도움이되엇슴에 鑑하야 過去 數年間 沈滯狀態에 陷하얏든 養蠶에對하야 今後 徹底的으로 獎勵할計畫으로 忠北道當局에서는 七月九日부터五日間 道內各郡에 技術員을 派遣하야 季節的桑田의肥配管理를 督勵하기로되엇다는바 同期

알콜原料作物 平北서獎勵計畫

新義州工場의性能은五萬石

【新義州】揮發油의 消費節約及 代用燃料의 自給을 圖하려는 燃料國策으로서 昭和十二年度부터 揮發油에 無水「알콜」을 混用하야 國策에 副할方針을 確立하얏는데 現在消費의 揮發油에 二〇%의 無水「알콜」을 混用한다고 하야도 三十萬石以上의無水「알콜」을 必要케될것이다 目下新義州에 工場設立計畫을 進行中인 木村無水「알콜」은 原料其他의 關係上 年產五萬石內外로 不足二十五萬石의 原料는 穀物에서 求하지안흐면 안될狀態에잇다 이에 平北道에서는 原料인甘藷 馬鈴薯 菊芋等의大增產計畫을 樹立하기로되엿다

終了後는 道幹部는 隨時 이에 對한 實行狀況을 視察하야 獎勵의 萬全을 期토록할 計畫이라한다

咸南水產加工旺盛

【咸興】水產加工業으로 그將來가 極히 有望視되고잇는 水產品罐詰工業은 年復年旺盛하고잇는데 昨年中의 咸南十三個工場에서 生產된것은 一七一、七一三箱의 多數로 價格으로는 百二十三萬五千四百九十四圓의 巨額에 達한다

大邱稅務署에서 所得稅査定開始

【大邱】大邱稅務署管內의 昭和十二年度所得稅는 去六月二十四日 同署樓上에서 査定委員會를 開會後休會하얏다가 五日부터 再會하야 十日까지審議終了할 豫定인바 今年의 所得稅賦課率은 從前과는 反對의 方向을 取하고잇다 即 只今까지는 地主階級에 過重하고 工業資本家에 輕하얏는데 昨年의 風水害로 因하야 地主階級의 所得은 減少되고 反面에 工業의 勃興으로 工業家에 過重하기로되엇다한다 그런데 同署管內의 十一年度分의 所得稅調定總額은 所得額 一千二百一萬四千七百三十圓에 對하야 三十五萬二千六圓이란 賦課로 人員은 四千十八人으로 今年도 大體에잇서 前年과 同樣이라한다

高靈星山市場移轉

【高靈】商人間은勿論 地方有志와 當局者間에 洪水時에는 泥海之境이라 不便이 莫甚하야 地方發展上 支障이잇고 現在 面事務所附近으로 移轉코저하얏스나 一部反對運動도잇서 자못注目되고잇든 高靈郡星山市場은畢竟移轉키로되어 當局에 許可를 提出하얏든바 數日前에 內示를 어더 目下 起債手續中에잇는바 不遠間移轉하리라고한다

咸南道明卵製造 許可制를遂實施 (上)

【咸興】一般群小業者의 動向이 極히 問題되고 잇섯스며 또한 그結果에對하야 不少한 念慮를 하고잇든 明太魚卵製造許可制實施에 際하야 道當局에서는 아래와가티말한다

明太魚卵의 製造는 咸南의 特產으로 그生產高도 逐年增加하야 벌서 年產百萬圓을 突破하고잇스며 그八割은 日本內地에 移出되고잇는데衛生施設이 極히 不充分하고또는種法에 依賴함으로 商品價値를 損傷하고잇다 이러하야 只今에이르러 이改善方法을講究치안흐면 早晩 大資本家에 거併合될 危機에잇다 그리하야 近千餘戶의 이業者들은 大한 脅威를 늣기고 잇슴으로 이때에 許可制를 施行하야 現在相當한 施設을하고잇는者 以外에는 絕對許可치안코 漁業組合에 完備한 共同作業場을 設置하야 製品의 向上과 公衆衛生의保持及 漁村副業의 維持保全을 圖하려고하는바이다

그런데 七月一日附 道令으로 發布된 咸南明太卵製造取締規則의條項은 다음과가트다

第一條 明太卵은 道知事가 指定한 漁業組合共同作業場 又는 道知事의 許可를 바든 工場(以下單히 製造工場이라함)以外에잇서서 營利의 目的으로 製造할을 不得함. 營利의 目的으로 明太卵을 道外로 搬出하려고하는者는 道知事의 許可를 바들것

第二條 前條第一項指定 又는 許可를 바드려고하는者는 製造工場마다 左에 揭한 事項을 具하야 道知事에게 申請할것

一、住所、氏名及生年月日 (法人에잇서서는 主가되는 事務所의 所在地及名稱과 代表者의 住所及 氏名)

二、製造工場의位置

三、製造工場의 敷地面積建物의 坪數 及設備槪要

四、用水性質及 分量

五、製造原料蒐集方法及 製造豫想數量

六、許可를 바드려고하는 期間

前項의 規定에依한 申請書는 製造工場의略圖 及製造工場附近의見取圖를 附할것

第三條 前條第一項의 許可의期限은 許可日부터 五年以內에 限함

第四條 道知事가 必要잇다고認할時는 製造工場의 指定 又는 許可를함에 際하야 이를 制限又는 條件附로할수잇슴

第五條 道知事는 製造工場의許可를 바든者의 申請에依하야 許可期間滿了日부터 五年以內에 이期間을 延長할수잇슴

◆產◆業◆短◆信◆

▲鎭興 咸南 永興郡 馬場金融組合은 創立되지는 不過五六年이나 彭鷗城이 永興十三面中 가장 富裕한 順寧、德興兩面으로 되여잇는것만치 組合員도 相當히 늘어 今日엔 一千六百二十名이란 多數를 가지고 잇슬뿐만아니라 昭和十一年度末의 貸付金總額을 들어보건대 十七萬六千圓이란 巨額인바 그를 다시 細別的으로 組合員每名에게 平均分配하야보면 一百圓以上이 될하며 近者에는 農村의現金貸付率이 漸次로 늘어가는現象으로 昭和十年度 貸付總額이 十四萬四千五百餘圓인데 比하야 同十一年度에 約三萬餘圓의 增加數字를 보고잇다한다

▲江華 江華郡仙源草芝兩倉庫에貯藏中이던 正租一萬三千三百七十叭을 金十萬四千六十五圓에四日 仁川府內精米業家 金萬興氏에게 賣却하얏는바 一斤平均八錢六厘强으로 相當히高價에 賣却하얏는데 그간에 倉庫費또는 東拓及朝鮮銀行에 金利를支給코도 相當한利益이 貯藏主에게分配되리라고하야 江華郡 農會役員들은 喜色이滿面하다한다

▲淸州 淸州商工會議所에서는 七月十八日 京慶線梅浦驛前 錦江河畔에서 定時總會를 開催하기로 되엿는데 當日 昨年度 決算報告와 事業報告를 하기로 되엿다한다

質疑

◇高嶺土分析所

問 高嶺土를 分析하는곳과料金을 下敎하여주시오(欲知生)

答 京城府東崇町一九九 中央試驗所窯業部에서 高嶺土에對한 試驗을합니다 同所에直接問議하십시요

日用商品市況

▲綿布閑散 米棉休會印棉四〇錢低의 材料로 三品三、四圓가량 軟弱 市中現物界는 定期不勢와實需不振으로 閑散하다

▲砂糖底堅 爪哇糖高와消費增大로 砂糖은 好調를 繼續하고잇는바 더욱히 目下夏期需要期에 直面하야 實需의 著增과先高를 豫想하고假需要의 增加로 時勢는 자못 底堅하야 六日 六十斤(百斤)俵當 京城時勢를보면 大體 如左하다

白砂糖 二三、八〇
黃砂糖 二二、六〇
分蜜糖 一九、五〇
黑砂糖 一四、五〇

▲麥粉堅調 일직이 原料麥增收豫想으로 續落을告하든麥粉은 新麥의 意外底强과 爲替管理强化로 因하야 다시 强調를示하게되엇다 어제 六日 京城時勢를보면 二十二斤袋當은大體 다음과가트다

카메리야 七、五〇
비-나스 七、五〇
二 鷹 四、五〇
赤 鷹 四、五〇
綠다이야 四、五〇

▲雜穀 六日 京城雜穀市況을보면 大體다음과갓다

▲大豆硬化 滿洲大豆는 在庫豐富하나 如前히 一高一低로保合圈內이나 朝鮮產大豆는 日本內地入荷 散見으로 在庫漸減이며 奧地出廻는 期待하기困難하야 時勢는 硬化하야 低價에서 每石二十錢反撥하얏다 勿論大勢는 滿洲大豆動向에 支配될것이나 當地在庫豐富치못한 實情으로는 低價는可望키 困難하다

▲粟閑散膠着 賣買殆無하며 따라서時勢도膠着되엇스며 產地新規輸入은 全朝鮮을通하야 每日十貨車未滿에 不過하다

龍山三等 石 二二、七五
滙汝長 石 二二、三〇
金汗 石 二〇、六〇

年內渡新物은 아직 具體化되지 못하엿고 呼價는 龍山石 一八、五〇假量이다

▲大麥閑散反撥 各地出廻旺盛이나 增收發表에 低落된 時勢에는 應賣치아니하야 賣買閑散하며 當用願買者는 多少高價로라도 買入하는 狀態이다

奉天 百斤 八、三〇
四平街 百斤 八、一〇
遼陽 百斤 八、〇〇
天津 百斤 七、五〇

▲小麥氣迷 外麥은 米國小麥收穫豫想區區와 各地方의 部分的被害報道頻頻으로 逐日暴騰이나 麥粉賣行은 極度로 不良하야 各製粉會社 端境期持越原料及 製品이 近年稀有로 豐富함으로 新麥에 對하야는 一切沈默하야 其動向이 注目되며 따라서 外麥强材만으로 買進키도 困難하야 雙方氣迷深甚하며時勢는 保合이나 日本內地及朝鮮共히出廻最盛期 切迫으로 結局은 惡化되리라고 豫想된다

秋麥 石 七、〇〇
春麥 石 六、〇〇

▲胡麻不變 夏節關係로 賣行不振이며 產地入電도 不變으로 保合 賣買閑散하다

沙里院 石 一八、五〇
新幕 石 一八、三〇
奉天百斤 一五、〇〇
四平街百斤 一四、〇〇
上海百斤 一五、六〇

巨人拳鬪家는 活躍期가짤다

米國拳鬪팬의珍說

“巨人拳鬪家의活躍은 短期間이라”는 滋味잇는 斷定을 내린사나이가잇스니 그의이름은「호랭크·G·멩케」라고부르며 米國에서 有名한『스포-츠百科辭典』이다 『멩케』는 現在까지 輩出한數만흔 巨象拳鬪家를 得意의『메스』로研究한結果 다음과가튼結論을내린것인데 拳鬪에對한한가지意見으로 紹介하는바이다

나는身長六呎三吋 體重二百乃至二百十五封度以上의 特作的巨人은 링界에서는 거의 빗나는 實力을 보일수 업다는것을 發見하엿다 그리고 巨人拳鬪王의 大部分은 其時代의 環境과周圍에 따라 幸運의惠澤을입어 王座를 占한적이만타

例를들어말하면 巨人中의代表的選手인『제스·웨라-드』(一九一五年─一六年의世界選手權保持者)는 六呎七吋 二百四十七封度임에도 六呎一吋半 百九十封度의『뎀씨-』選手에게KO되여 王座를빼앗겻스며 屈指의巨漢六呎七吋 二百七十八封度의『카르네라』(一九三三年─三四年의世界選手權保持者)는 六呎一吋 二百十封度의『페아』選手에게王冠을 讓步하엿다 其外에도『칼·모리스』『호렛드·홀톤』『레이임페리레리』『뷔토리오·캄보로』『에드·단크호-스트』等 諸君도 잘알려진人物이되지못하고 시드러버렷다

가장 오래前『뽀브·헷지맨스』(一八九七年)時代의 七呎이라는 超弩級의『하─만·뿌리-크』選手도 小型의『킷드맛코이』에게 敗退하야 大成을 이루지못하엿다 이외가티너무肥大함으로 王冠을 獲得치못한『巨象選手』는 그의末路에잇서 許多한悲歎曲을 울리고잇다 一九二三年에도『빅·벤·레이』라는超弩級의 爆沈이잇섯다 그外에도 最近의 일이지만伯林올림픽大會에잇서서 砲丸의覇王『짝크·토란스』選手가올림픽終了直後에 拳鬪로轉向하기까지에는 別다른故障이 업섯스나 이올림픽의 勇者는 早急하게도 今年四月에 그肉重한體軀를 이끌고『까욕-』의『링』우에登場하야 慘澹한記錄을남기고마럿다 三百廿封度라는 이올림픽아의 巨人은 不過數個月동안에 成功의길이막히고마럿다 巨人『토-란스』는 벌서慘敗로因하야『링』生命의길은끈어젓다 그러나 이와가티 巨人은 所用업다고 斷念하엿든 나의觀念은 不動한바잇스나 한편歷史를더듬어볼때다만한사람이잇다는것을發見하엿스니 그는『피-라-·쫄코-란』이라는 六呎七吋、二百五十封度의 拳鬪王이다 그는一七六九年에 愛蘭의 重量級選手權을 獲得하고 一七七〇年 世界選手權을 保持한『라이온스』(英國)가隱退하얏슴으로 싸우지안코 王座를 占한選手이엇다 이『쫄코-란』選手만이 選手權者로서 遺憾업는 實力을具備한 快男兒이엇섯다

京醫專野球九州遠征

第一回大學高專野球大會에優勝한 京城醫學專門學校野球部는來十三日부터 福岡市新香椎球場에서 開催될 第一回全日本實業專門學校野球九州地方豫選에 出場코저 十日京城을 出發하기로되엿다한다

스포츠外交家 李想白氏 八月十日頃歸國

스포-츠外交의敏腕家 李想白氏는 國際올림픽委員副島道正伯의秘書로 지난四月二十八日에橫濱을떠나 米國을거처서 六月初旬『왈소우』에서열린 國際올림픽委員會總會에參席하야 冬季올림픽開催地를札幌으로 決定하기까지 副島伯의補佐役으로 큰功勞를나타내이엿는데 李氏는 其實外部에는 發表되지안햇스나東京올림픽組織委員會의 競技部代表의重任을띄고 『왈소우』會議에 臨하야모든難關을물리치고 東京올림픽大會의各競技規則 擧行種目 競技場設備에對한 一切를國際올림픽委員會席上에서 提議하야 各國代表의 賛意를어더 『왈소우』會議에 出席한 競技部代表로서의 重任을다하엿다 이리하야 歸途米國을 經由하야 來八月十日頃에는歸國할豫定이라한다 (寫眞은 李想白氏)

冬季올림픽實行委員

【東京電話同盟】第五回올림픽冬季大會實行委員會構成에 關하야서는 去番에 小川大日本體育協會評議員과 妥協한結果 體協側과의 諒解가成立되여 委員들의面影도內定되엇는바 銓衡委員會에서는 現地의希望에따라 다시 札幌遞信局長、小樽市長의三氏를 委員에 追加하야 東京札幌間의 事務連絡의幹事로서 『스키-』『스케-트』兩團體로부터 各二名을 推薦하기로內定한다음 六日에開催할 委員會에서 其人物을正式決定할터이라한다

今夏日本에遠征할 米國陸上팀選拔

【밀워-키-發電】今夏日本에遠征할 米國代表十五名을 選拔하엿는데 그中에는 世界記錄保持者三名、米國選手權者十名、伯林大會覇者二名으로、米國으로서는 只今까지 海外에보낸 代表팀으로보넨中에는 最强팀이다

監督 찰스·한터-、百米、二百米 와이아-스하-자、四百米앙그、八百米 옷드라프、千五百米 펜스크 短距離及障碍 르밋크 ▲四百米障碍부아- ▲砲丸、圓盤 레이놀즈 ▲搾高跳세프톤、메도-스、走高跳알부릿톤、投槍라이츠▲投鐵槌及投砲丸 팔월즈니-、三段跳부라운 五千米三千米障碍모크나-、走幅跳킹그

少年七月號

七百萬 朝鮮어린이의 唯一한 동무 『少年』! 읽어서 고대로 살로가 고뼈로 갈 이 內容!

※이달의主要內容※

·七月七夕(傳說)……金道泰
·中國少年(訓話)……朱耀燮
·코찡찡이(漫畫)……鄭靑羽
·地球얘기(科學)……沈亨弼
·신 발(童話)……尹石重
·공의노래(童話)……李順伊

●朝鮮日報社寫眞見學● 編輯局 營業局 出版部 寫眞部 工場……할것업시 大朝鮮日報社를 샅샅치 구경! 『少年』七月號 한卷만가지면 방에 가만히 안저서 朝鮮日報社속을 다 구경할수가잇다!

★少年英雄傳─車相瓚
★童謠作曲集─尹克榮
★少年健康讀本─鄭潤鎔

少年讀本……수요한

少年作品特選集
▲밀 자(童謠)……趙俊哲
▲진달래(童謠)……崔石崙
▲바 람(童謠)……朴光憙
▲報德寺(作文)……李明九
▲봄(作文)……李炳璇
▲강아지(作文)……金台鎭

漫畫·공일날 (아기자기 우습고 우순 만화들)……鄭靑羽
漫畫·개고리의피
漫畫·修學旅行

□少年談話室 □깔깔笑年會
□少年娛樂室 □少年遊戲室
□척척問答室 □少年新知識

■音樂家가되려면……洪蘭坡
■부처님만든얘기……金復鎭
■키다리先生생각……馬海松
■재미나는朝鮮말……崔鉉培

白假面 探偵冒險長篇小說! 金來成先生의大力作

三大名作讀物
·호랑이사냥……桂春根
·어머니차저서……蔡萬植
·웅철이의모험……朱耀燮

特別附錄 움직이는그림책 活動寫眞처럼움직이는 신기한그림! 이달「少年」의 特別附錄!

★팔뚝時計다는大懸賞★ 아모나 탈수잇는 아조쉬운問題! 一等엔萬年筆 二等엔하-모니카

注文은시방곳!

단十錢 朝鮮日報社發行 (振替京城 八七八五) 販賣所大募集

地方論壇

八萬伊川民의 教育上大問題
明誠院의 昇格案

사람마다 各自의立身과 揚名이며 治國興家를 計劃하야 個性의完全을 期하며 日常의言行 事業등을비롯하야 士農工商과 政治法律 天文 哲學등에 이르기까지 事物의 모든것이 모두 敎育의힘이아니고는 到底히 目的을 達成치못할것은 再言의 必要가 업거니와 朝鮮의 現況을 보드라도 배워야살겟스며 아는것이 힘이라는 金言을 간곡히 웨치고 잇거니와 그러면 얼마나한 敎育의 進展을 보왓는가? 統計的 數字로서 適例見

當의 一割바겨우수용된다는것은 一般이 共知하는터인바 이것이 배울사람이업느냐? 또는 배울사람은잇서도 배울곳이업는가? 한은 말치안트라도 잘아는事實이므로 陳腐한말을 느러노코자하지안커니와 배울곳이업서 배우지못하는 朝鮮兒童을 爲하야는 무엇보다 學校의 增設이 緊急하고 重且大한 所致로서 八萬郡民이 살고잇는 伊川郡의 敎育機關은 어떠한가? 現在 十一個面에 普校 一個씩은 完成을보앗고 簡易學校가 四個所 幼稚園이 三個所 조고마한 講堂이 몃몃개잇스나 現在就學率은 겨우 一割八分에 不過하니 어찌寒心한일이아니겟는가? 그럼으로 이에 留意한 伊川天主敎會에서는 朴神父가 時代的 趨移에 깨다른바잇서 天主敎會의 經營으로 三年前에 明誠學院을 創設하야 現在 近百名의 兒童을 敎養하고잇는바

郡內私學機關으로서는 이만한것도 볼수업느니만치 一般의 期待가 큼뿐아니라 將次伊川郡敎育上 만흔功績이 잇슬것도 明若觀火의 事實이나 그러나 明誠學院의 經營者가 堂堂한 私設學校나 講習所에 依한것이 못되고 宗敎規則에 依한것이므로 法的으로서 너무나 微弱함을 다시금 遺憾으로생각하는바 元來天主敎의 經營으로 私立明誠學校가 잇서 伊川郡敎育界에 적지안흔 功績을 끼치든것이 一朝에 過去天主敎徒의間에 關係로 學校의 財團을 天主敎堂 建築費用으로 업새여노코 不得已 學校를 한갓인 原則的으로 天主敎라는 宗敎團體의 經營이니 만치 天主敎를 爲한 敎堂이므로 學校基本金을 하나님의 聖殿을 建築하는데 消費하엿다면 그리큰 허물은 아니겟스나 社會的으로 이를 볼때에 오래인 歷史를 가진 明誠學

校……더욱이 朝鮮初等敎育機關의하나인 學校가 일홈을 다하는무나 學校한다는 當時의 敎徒들이 우친바이서 朴神父의 熱誠으로서 萬光 靑年學生뿐이 伊川敎이나마 만드러 將次二世國民敎育上 萬全을期하게다는 堅固한 決心으로 明誠學院을 創立하야 校舍를新築하고 六年制로서 百名의 兒童을 敎養하는바 먼저 朴神父의 그 理想이란 누구나 다 敬服하겟스나 朴神父의 努力도 明誠學院을 完全한 私立學校로서 認可를 밧지못하엿든 것의 昇格運動에 步調를 가티하야주는 사람이 업느니만치 朴神父 혼자서 無理하게 지내는바 明誠學院昇格運動은 非但 天主敎의 發展이라는것보다 伊川郡 兒童敎育上 重大한 關係가 잇느니만치 自然의 돈도 맛흘면 것이다는 것은로 모든것이 財政難의 關係

校이니만치 八萬郡民이 살고잇는 伊川社會에도 私立學校 一個所를 經營하는 한 資源이 업슴는아니고 다만 該敎의 有無에 左右될것인바 먼저 敎徒들이 明誠學校를 업새여바린 責任感에서 明誠學院을 明誠學校로서 昇格運動의 第一線에 나와서 昇格에 힘쓸것은 勿論 八萬郡民으로서 것이 天主敎經營이라는 偏狹을 바리고 伊川郡內에서 자라나는 어린이! 二世國民의 敎育機關强化라는데 비추어 힘잇는바 完成은 伊川郡民의 取할바 길이요 하지안으면 아니될 責任感에서 明誠學院 昇格運動에 步一步로서 高唱을 排除하고 社會有用의 辨智聰明한 俊才를 길러낼 私學機關의 完成에 勇往邁進키를 바라고 八萬郡民에게 이 一言으로써 訴하는바이다 (伊川支局 一記者)

工都淸津에朗報

工場地帶와海港間 運河堀鑿實現?
輸城川放水路浚渫으로工費도僅少
明年度府豫算에計上

【淸津】 수성천(輸城川)의 폐천을 방수로(放水路)로 만든 것은 당초의계획으로는 먼장래에 수성평야가 공장시대로 될때 이를굴착하야 운하(運河)를 만들자는것이엿다는데 지금은 그꿈이 실현되려는"모멘트"에도 달하얏다 즉 수성천과 방수로의 중간에 자리잡은 대일본방적청진공장(大日本紡績淸津工場)은 해항(海港)과사이에수로가필요할뿐외라 다른공장도 압흐로 그가튼필요를늣기게될것임으로 방수로를길히 파가지고 이를운하로 만들기로 부당국에서도 그계획을 확립하기에 이르러 명년도 예산에 이를계상하리라한다 운하공사에는 적어도 십척내지이십척을 파내지 안흐면안될터이라는바 이토사는 그대로 부근에 매축용으로 리용됨으로 경비는 비교적적게들것이라한다 한편운하를 완성하기에는 무엇보담도 필요한것이 하구(河口)에 방파제(防波堤)를 만들것으로 그비용이 약삼십만원에달함으로 전후공사비가 총합사오십만원에 달하리라한다 이계획이 완성되는대로 공장지대에는 들도업는 복음을 향수할것으로 각방면에서의 기대가 자못큰바잇다한다

假字醫生이殺人
石牛黃을먹여即死케

【鳥致院】 둘팔이의원이 독약을 먹여 사람을죽이고 경찰에잡힌 일이 충남연기군조치원(燕岐郡鳥致院)에서발생되엿다 피해자는 충남아산군온양면권곡리(牙山郡溫陽面權谷里) 김득춘(金得春)의 처 추씨(秋氏)(□)로 자기맛딸이 조치원에서 어린아들을 다리고 청상과수로 복잡장사를하여가며 그날그날지내는 정상이 불상하야 오래전부터 그딸의집에와서 살림을 보살펴주든터인대 년전부터 복부가 불너저서 잉태한것가티되면서 음식을먹지못하고 신음하든중에 가해자인 동군전의면읍내리(全義面邑內里) 리춘교(李春敎)(□)가 침구술(鍼灸術)이 용하고 또는 의술이용하다는말을듯고 때맛참 조치원에 지내가는 가해자를 청하야 치료하여주기를 청하엿든바 가해자는 자기약을 사용하면 곳 전치된다고하며 지난 삼일오전 십일시경에 석우황(石牛黃)닷돈중을 먹이엿는데 불과십분도못하야 토하기시작하야 그날오후 사시경에 절명되엿슴으로 가해자는 곳조치원경찰서에 잡히여 취조중이며 시체는 익일에해부한후 가족에게 인도하엿는대가해자는 매약행상하나 의사도아니요 의생도아닌사람이라한다

不景氣의反映
不渡手形激增

【平壤】 이즘 평양상가는 근년희유의 불경기로 파산지가 꼬리를물고 속출하고잇는현상인데 이제 평양은행조합에서 발표한 류월중 부도수형을보면 모두백팔매 삼만이천오백구십오원인바 부도인원은 오십사명으로 그중 취인정지인원이 이십이명 무려 인지구명으로 상가의 일대공포 기로서 다시종별로보면 다음과가다한다

小切手	[illegible]枚	[illegible]圓
約束手形	[illegible]枚	[illegible]圓
合計	[illegible]枚	[illegible]圓

被告들事實否認
證人三名을召喚審問키로決定
通川"秘密클럽"事件公判

【通川】 강원도통천 비밀클럽(通川秘密클럽)사건 리병순(李炳淳)(□)등 일곱명에대한 치안유지법위반(治安維持法違反)사건의공판은 오일오전열시반부터 함흥법원에서 국지(菊池)재판장의주심 서야(西野)리(李)량판사배석 대정(大町)검사의관여로 열녓다 피고들은 오랜옥중생활로 모다 몹시수척하야보엿스며 방청석에는 피고들의지기인듯한 십여명의 방청인이 잇섯다 경내의자를 면군대채우고 잇섯다 피고리병순(李炳淳)(□)으로부터사실심리를하얏는대 피고는 그들이 하얏다고하는 사실ー체육회(體育會)라는 간판미테서 공산주의의 선전을목적하는 독서회(讀書會)를 조직하고 교양활동에 노력하얏다는것을 전체로부인하얏스며 체육장려를 목적하고 체육회를 조직하얏슬뿐공산주의선전은 한일이업다고 하얏다 그리고 검거되얏슬때 ×××에서 ××를바든관계로 할수업시 시인(是認)하게 되얏다고 매우 흥분된어조로 말하얏다 그다음 피고일곱명이 모다이구동성으로 사실을부인 일관하얏다 그리하야 오후두시쯤 사실심리를 모다 필하얏는데 류해문(柳海文)변호사로부터 증천서사법주임 이사건관계자(혐의박약으로석방)등오명과 각 피고들로부터도 수명의증인(證人)신청이잇섯는대 판사들의 합의(合議)끄테 이사건에관계되엿든박용범(朴容範)등세명을 증인으로 소환(召喚)하기로 결정하고 폐정하얏는대 차기공판일은 미정이며 이증인심문여하가극히주목되고잇다

鐵糸專門窃盜
平壤署에被捉

【平壤】 철기군이 나흔범죄ー평양부내서성리(西城里)백오십칠번지 김용식(金容植)(□)은 철사풀등에 마음이 끌리며 지난류월상순부터 동리화장장(火葬場)묘지에 둘러싸흔철사를 전문으로 수십회 절취판매한것이 드러나 방금평양서에서 엄중취조중이라한다

清風分局後援 全朝鮮庭球戰
來八月中旬頃

【忠州】 본보청풍분국후원과 청풍청년단주최로 개최되는 제삼회전조선단체정구대회(全鮮團體庭球大會)는 오는팔월중순에하기로 결의되엿다한다 전선각지선수는 영예권을 획득하기위하야 만히참가하여주기를 바란다는데 대회요항은다음과갓다한다

一、時日 八月中旬頃
一、場所 清風校庭球場
一、申請期 八月十日까지
一、申請金 每團體一圓
一、賞品 優勝旗及副賞授與함

夫婦싸홈이비즌 넌센스劇一幕

【信川】 신천군 문화면 화암리(花岩里) 정현국(鄭賢國)(□)이는 극진히 자기안해를 사랑하든바 얼마전부터 좀 쌀쌀해진듯한 자기안해 윤순희(尹順熙)(□)에게 행실이 부정한점이잇다고 폭행을 가하엿스므로 부부간에 싸홈이 버러저오든바 순히는 『더러운 루명을 쓰고 사느니보다 차라리 죽엄으로써 깨끗이 청산해버리자!』하는 결심

소동만 이르켯슬뿐이다 그찰나 어디갓든 현국이는 자기안해가 이미 죽어버린줄만알고『아이구 내안해가 루명을쓰고 죽다니』하며 압산에 뛰여올라가 솔나무에다 목을 매고 느러저잇는것을 뒤따르든 동리사람들이 노끈을 풀러놋는일면 문화시의명재병원(明哉病院)의사를 청해다 응급수당을가한결과 생명에는 아무관계업다하는바 그근방에선 일대웃음거리로되엿다한다

三署聯合으로 染病豫防宣傳

【平壤】 녀름철에잇서서 가장인명을 위협하고잇는 전염병을 일소하야 건강도시 평양을 건설하자고 평양부 평양 대동량경찰서 련합으로 자동차수대로서 행렬을지여 순회하며 선전지삼만오천매를 배부하야 일반시민에게 구든 인식을 너어주엇다한다

"呼出濫發은不可"
民願은簡便또急速處理토록
忠北郡守會議서指示

【淸州】 종래 행정사무에잇서서 민중의 호출이자심하야 민중으로하여금 시간허비등의 손실이 만헛스며 민원(民願)사건의처리에잇서도 조속을결하야 일반민중으로하여금 막대한시간을 허비케하야 농촌진흥운동에 심대한악영향을 끼치고잇다는점으로 금후로는 민중의 출두의기회를 극력적게하며 부득이출두를 필요로할시에는 출두시간의선정、민중의편의를 도모하는동시 민원용지의교부、민원사건에대한 읍면직원의대필 급구두수리의장려 민원처리의 신속을 기도할것을 수일전 충북군수회의에서 지시하엿다한다

長箭邑制施行
盛大한祝賀式

【長箭】 장전항은 강원도의 웅도로 동해안 일부인 금강산어구의천연적량항(天然的良港)으로 인구일만오천과 년수산액 일천만원의 수자를돌파하는 유명한 어산지로수년전부터 일반주민들이 읍제의승격을 대망하던바지난 일일부터 읍제의 시행을 보게되엿다 일일오후한시부터 읍사무소에서 유창황영익(黃永翊)씨 사회하에 다수관민이 집합하야 읍승격기념식을 성대히 거행한후동세시에 폐회하엿다한다

豐年雨!
南北에均一洽足
農民歡動天地!

【淸州】 충북도내는 월동강우량이만 혀든관계로 이앙이순조로워 삼십일현재로 이미팔할경의이앙완료를 보게되엿스나 류월중의강우량이 묵미리에불과한관계로 아직까지 한해라고할정도에이르지는안헛스나 금후십일내로 강우치안흐면 한재소동을 이르키게되리인데 지난사일새벽부터 도내각지에비가나리며 일반농민이갈망하든 천금우는 흡족하게나리엿다 이상태로 미루어보면 오는십일까지에 도내이앙은 전부완료되리라하며 전작(田作)에잇서서도 대풍을 예상하고잇는터로 일반농민은 수무족도하고잇는터이라고한다

【靑陽】 약한일전이후로 맛종 약간의비가잇섯스나 농작물의해갈은귀냥 음진도채못되며 전군경지면적의 이앙치한곳이 삼할가량이나되고 전작의파종이발아가못되여 농민들은 극히불안상태이든중 지난사일오전구시부터 비가나리기시작하여 하천범람으로 광천행자동차까지 불통중이며 아직것비가개이지아니하여 넉넉한감우(甘雨)임으로 농민은 아프로 풍년을 예상하고 무한한희색으로 격양가를 부르고잇다고한다

【庇仁】 서천군비인면과 서면(舒川郡庇仁面、西面)양면은 량년한재지이든바 금년봄에도 천후순조로약칠할가량은 일직이 이앙이되얏든바 그후로 또다시 한발이계속하야 전답이귀열상태에 이르러 금번에도 한재를당하다고 일반의 인심은 흉흉하야오든바 지난칠월사일부터 기다리든비가 나리기시작하야 천수답까지 일제히 이앙하게되얏슴으로 일반은 밧부게모를내고잇다

【龜城】 농촌의제일중요기인 이앙기의 한발로 귀성군일대는 이앙을하지못하고 매우초조한빗으로 감우를 고대중이드니 전달이십팔일부터 감우가 내리기시작하여 지난삼일저녁에는 정말흡족한호우가내리여 여짓것 이앙도못하엿든전작에는 대흉작으로 농가에서는매우만족하고잇는바이러케 순조로나간다면 금년은 풍작을 기대케되다고한다

【運餉】 풍천지방에기는 초조하비오기만 기다리고잇는중지난삼일오후세시경부터비가오기시작하야사일오전세시까지계속하야비가나리엇는데 대정수리조합발표에의하면 약구십미리가량나리엇다고한다 이로인하야 이앙은 순조로히끗마첫슬뿐더러 만물을 소생케하야 도처마다환성을부르게되엿다 그리고 이번비야말로 풍년비라하야 일반농가에서는 크게깃버하고잇다

【錦山】 금산지방에는지난사일아침까지 만일주야동안에 칠십사미리(當一石三斗五升餘)가 나리여 일반작물에는 흡족하엿스나 모를 내지못하고 잇는천수답에는 아직도부족하다한다

【群山】 군산지방은연일우기(雨氣)를 실흔 훈훈한바람이 메칠을두고 불드니 지난사일아침부터 세우가 내리기시작하야 오일아침까지 내린바 전우량은 삼십칠미리로서 이로서 이앙을 전부끗마그리라한다

【忠州】 충주일대는 지난사일부터는비가오기시작하야 아즉오는중이나 겨우 구금밧게되지안홈으로 일반농가는 금후일기가 어떠할것인가를 념려한다고한다

【尙州】 경북상주군내에는 오래동안비가오지아니하야 농가인심이 극흉하여저서 이곳저곳에서 물싸홈이 일어나고 백곡의손해가태심하든바 지난 사일오전여들시부터 비가나리기 시작하야 약사십구미리 가량왓는데 농민들은 주야를 모르고 모심기에분망중인대 아직도 비가미흡하야 이앙이 완료되지못할 모양이라고한다

組長椅子問題로
南浦產組에또紛糾
總會에서도波瀾難免

【鎭南浦】 진남포산업조합(產業組合)은 작년시월이래 복전리사(福田理事)의부정사건으로 인하여 천여명조합원들이 분규를일으켜가지고 비상히도 세간의이목을 놀나게 하여오다가 금번상업에 비로소 복전리사는면직처분을 당하고 길강조합장은사임하게되여 이래무주상태로 되여잇는바 얼마전리사로 과생(瓜生)씨가도당국에 임명을 바다부임되엿고 조합장은 조합총회에서 선거할것이니 만치조합장의자임한 작년가을부터 조합장의자를 두고알륵이일어나 별별수단방법을 써가면서 조모 오모(趙某吳某)량씨가운동 하여오든중조씨는 그러든중리가를 일으키면서까지 대립적으로 나갈필요가업다고 한인지 인퇴하여버렷스나 오씨만은 그저긴급백여명조합원에게 위임장(委任狀)을 바더가지고총회일만 기대리고 잇다고한다 그러나일부조합원들은 오씨는 산업조합에 현감사역으로 복전리사부정사건에 련대책임이잇슬뿐아니라 총회일도작정되기전에 암매한조합원들에게 감언리설로위임장을 바더가지고 조합장이 되려는것은 조합규약을문란케하는동시에 야비한행동이라고해 적극적으로반대의 기세를 올리고 잇다고한다 그래서지난 오일오전열시부터 조합원지이십여명이 조합이층에모혀조합장 선거문제를 토의한결과 역시오씨를 절대배척할 형세를 보엿다고함으로 장차조합총회는 큰파문을면치못할것이 예상된다고하며 도당국에서도 이번 선거문제로 절대허가하지안흘 방침이라고함으로 장차조합장문제는 어떠케나 귀결될런지 주목된다고한다

南朝鮮蹴球大會
本報公州支局主催
期日을卄四日로變更

【公州】 기보=본보공주지국(本報公州支局)주최의 청소년의체육장려를 목적한 제삼회 남조선축구대회(南朝鮮蹴球大會)는 오는이십삼일부터 당지고등보통학교운동장에서 개최하게 되엿다함은 기보와 갓거니와 각지참가단체로 시일을 이십사일(土曜)로하여달라는 요구가잇서서 이십사일부터 개최키로 기일을변경하얏다 금번대회는 본사기증의 우승기외에 본보지국에서는 우승컵에 려비일부 보조로 상금이십원을 수여하기로되야 금번대회는 예년보다 일층대성황을 예기한다하며 대회규정은 좌기와갓다한다

▲大會綱領及規則
一、本大會는體育獎勵와蹴球競技及運動精神發揮를目的함
一、本大會의參加資格은南朝鮮內에居住하는者로함
一、競技場所 公州高普校運動場
一、參加團體 青年團 少年團
一、參加人員 每團十一人(後補二人) 監督一人
參加 青年團每團參圓 少年團每團一圓
但參加金返還은不得함
一、申請期限 七月二十三日午後五時까지
一、申請場所 朝鮮日報公州支局
一、主將會 七月二十三日午後九時
一、競技用球 朝鮮體育協會指定品
一、賞品 優勝旗 銀盃 賞金二十圓 其他副賞
(但少年部는 銀盃及賞金은 不在함)

正租共販實施決定
初年度엔定州宣川等六郡에
受檢場도農會가引受

【新義州】 평북도에서는 금년도부터 정주(定州)선천(宣川)룡천(龍川)의주(義州)철산(鐵山)박천(博川)의 륙개군에 정조공동판매를 실시하기로 되엿는데 정조공동판매는 경조출하(出荷)조합을 설치하고 검사를 집약적으로하야 검사장에서 수검(受檢)한경조를 등급별로 나누어 경쟁입찰에 부하여 벼(租)매수인에게 매도하는것으로 이는농가의손에『벼』가 일단중매인(仲買人)의손을거처 상인에게 매도되는 종래 매매(賣買)의 형식으로서중개인의 중간착취를 업새려는것이라한다 그리고『벼』수검장(租受檢場)도 경영자의 집합수검장은군농회(郡農會)에서 그권리의무일체를 인수하야 당여자의 권익을 존중할 방침이라한다

龜尾有志들特志

【善山】 학비곤난한 학생의 학비를 지방유지들이 자진보조하기로한 기특한사실이 잇다──대구사범학교(大邱師範學校)이년생 권경하(權敬夏)는 가정이빈한하야 금년봄에는 퇴학하지아니하면아니될곤경에 빠지엇든것을권군의향리인선산군귀미(龜尾)유지들이듯고 권군이졸업할때까지학비를보조하기로 결정하고다시시업을 계속하기로되엿다는데 그들의 미거(美擧)를 칭찬치아니하는사람이업다하며 권군의 전도를 위하야 다못얼마식이라도 동정할분은 금전의 다소를불구하고 귀미역전(龜尾驛前)박상희(朴相熙)씨에게로 보내주기를바란다고한다

移秧畢了도不關 小作爭議續出
철도모르는地主들의橫暴

【蔚山】 경남울산군의소작쟁의는 농지령(農地令)이실시된후로 더욱 그건수가 해마다 증가하는 현상에잇는데 금년에도 벌서수십건에달하야 울산군청의계원들은 항상분망한중 더구나 모심기도 벌서팔할이상이나된 지난일일에도 군청에서는 쟁의조정이잇섯다는바 그원인은 지주가 철도불고하고 이작하랴는것이대부분이라고한다。

九則校名稱變更
面民이憤慨反對
面民有志大會까지開催하고
公職者總辭職等決議

【大田】 대덕군구칙면(大德郡九則面)에잇는 구칙공립보통학교(九則公普校)를 군당국에서 돌연히 탄동면(炭洞面)공보교로명칭을 변경하고 구칙면에는 다시공보교를 설치하기로 결정발표하얏슴에 동면민일동은 크게분개하야 수일전면민유지 대회를 개최하고격분한가운데에서신중히 토의한후에 좌기사항을결의하얏다고한다

一、公職者全部總辭職
一、寄附金募集에不應
一、賦役出役謝絶
一、道郡當局에陳情

등오개조항을 결의하얏다는바공기는자못 험악하야 그장래가 매우 주목을끌고 잇다고한다 그유래를 조사하야보건대 구칙면과 탄동면은 린접면으로 동교를 설치할때에는 탄동면과구칙면이 협력하야 량면의 중앙지에 설치하얏섯다 금번일면일교제가완성됨에따라 대덕군당국에서는 지리적관계로보와 탄동면에는 학교를설치할만한 적당한 장소가업슴으로 구칙면에일개를 더설립하되 명칭은 구성공보교(九成公普校)로 하겟다하고 신년도예산에 편성하얏슴에 불구하고 돌연히 구칙보교를탄동보교로 개칭한다는데 분개한것이라고한다

有志代表者들 道、郡에陳情

별항보도의 구칙공보교를탄동공보교로 개칭함에 분개한 구칙면민일동은 지난오일 진정서를가지고 충남도청과 대덕군청에진정하얏다는바 아직확실한답변을듯지 못하엿든바 사건의귀결은주목을 끌고잇다

納涼童話大會
盛況中에終了

【仁川】 인천송현정유년주일학교(松峴町幼年主日學校)주최와 본사인천지국후원으로 납량동화대회(納涼童話大會)는 예정대로 지난삼일밤 여덜시반부터 기독교회송현교회내에서 개최된바 정각전부터 모혀드는 어린이는 진실로 삼백을넘는 대성황리에열리엿다 프로그람을따라서 동교주일학생의합창과 본사 최익선(崔益善)씨의 "효성스러운형제"와 "강남편지"라는 동화는 구절구절마다 소년소녀의동심을심취케하엿슬뿐아니라 재미잇는수공(手工)까지 보여주워 진실로 밤가는줄도모르고 동심시나되야서 화기애애한중에 폐회하엿다

烏致院

第四回中朝鮮蹴球大會

▲時日 七月十八日
▲場所 烏致院公設運動場
◇主催 烏致院蹴球團
◇後援 朝鮮日報烏致院支局

苦待의防波堤―
卄一個所를新設
統營漁民의大福音

【統營】 통영은 전조선을통하야 어업발달을위시하야 군내일백이십여도의 조그마한 섬을가지고 잇느니만치 해상에서 작업하는 어선이 군내를통하야 이천척이상의 수자를 보이고 잇스나그 선척의 소재지는 대개가 풍파가 센곳으로서 어선의 보지에 어민는 매우 곤난을 바다오다가 작년가튼 풍랑후에는 근 백척이상이 파괴되여 해상작업의 어민의 생활전선상 막대한 우려와 공포를 주고잇든바마침 금번도당국에서량해한바가잇서서 매처에삼백삼십원식의 도비로써보조케되여 군내각어업조합소재지를 중심으로 좌기와가티 이십일개소의 제방경보대(警報臺)등을 신설하야 어선의 보지(保持)에 지장이업게 하리라는바이이십일개소가 신설됨을따라 어민에게는 다소안심을 주게되리라한다

▲新設堤防 閑山(三)山陽(三)南海(一)巨濟(五)欲知(三)蛇梁(二)龍光(一)加助(一)諸島(二)

甕津郡下强盜
畢竟就縛

【海州】 일시서남부 황해지방을소란시킨 백삼십원강도가악운이다하야 경찰에 붓들리엇다 즉 옹진군교정면간전리(甕津郡交井面乾出里) 신만용(愼萬容)(□)의첩(妾)리처인(李處仁)(□)방에 강도가드러와서 전기리씨를협박한후 현금백삼십원을 강탈도주한사건이 발생한이래 소관옹진서(甕津署)에서는 범인을엄탐중 지난삼일오전일곱시경가튼 북면삼산리(北面三山里)에서 가천면장현리(茄川面長峴里)에출동하는 외권송림가운데서 범인그부근사는농부직 박기화(朴箕華)(□)를붓드러 방금취조중이다

白沙靑松松濤園에서
全朝鮮遠泳大會

【元山】 백사청송의 아름다운풍경을가진 원산송도원의 여름을 더욱빛나게 장식하기위하야 동해수욕장을 중심으로 각종모임이 개최되는바 금번원산체육협회(元山體育協會)에서는 전조선원영경기대회(全朝鮮遠泳競技大會)와 겸하여 원산수상경기대회(元山水上競技大會)를 오는삼십일일송도원부설수영장에서 개최하기로 되엿는데 경기종목과 참가자격은 아래와갓다하며 벌서 주최측에서는 준비를 착착진행중인바 전조선수영선수들은 누구나 다수참가하기를 바란다고한다

遠泳競技(自由型) 五哩 三哩 一哩
水上競技(自由型) 四百米 二百米 百米
參加資格(年齡)
少年部 十三才以下
靑年部 十五才以下
一般部 十六才以上

金川地方에는 雨量아즉未洽

【金泉】 지난 사일 오전구시부터 김천지방 일대에는 일전천금의 자우(慈雨)가 나리기시작하야 그익일 오전팔시반까지의 강우량은겨우 삼십사미리가량되는 모양이다 이우량으로서는 아즉도 천수답에는 턱도업시 부족한상태로농가에서는 비가 계속되기를 바래고잇는데 군내 이앙성적은 팔할오부에 이른다한다

地方人事

▲李永春氏(醫學博士)蘭領짜바에서開催되는東洋國際農村衛生會議出席人事次群山支局來訪

長篇小說 어머니 【87】
李箕永 作
鄭玄雄 畫

第二、母性篇 四、아들의상경(七)

행낭아범에게 짐을 지워가지고、새로 어더노흔 집을 차저가니、숙히는 그때까지 이사집이 오기를 기다리고 안젓다。

밤은 어느듯 열시가 지낫다。

진수는 모친의 무릅을 비고누어잔다。

『아이구、치운데、빈방에 와서 웨 혼저잇서요、이건 너무 미안한데요!』

인숙은 숙히를 보고 참으로 불안한 마음을 것잡지 못하엿다。

그는 행낭아범이 마루로 짐을 내려노키를 기다려서 오십전한푼을 안밧겟다는걸、가다가 술이나 한잔 가시라고 강권해서주어보낸뒤에 방안으로 세간을 옴기기 시작하얏다。

안빵 주인로파도 방문을열고 내다보며 인제야 이사를 오느냐고 인숙이에게 아른체를 하엿다。

인숙은 요전에 숙히를보고、자기만 먼저올라왓다고 귀름을헷기때문에、그는 아마、그동안에 필요한 친구를 먼저 가지고 왓든것을、지금도 기숙사에서 옴겨오는가부다구 별로의심하지 안헛다。그래 숙히는 인숙이와가티 그것들을 방으로드려놋는데 부속하얏다。

『아이구、이거봐!원……이신세를 어떠케 갑허야 한담!아니 어느틈에 이래수?』

인숙이는 비로소 방안 살림을 둘너보고 깜작 놀낸다。

『뭐 어느틈이여요?』

숙히는 마주 보고 빙긋이웃는데 인숙은 종시 놀나운듯을 크게뜨고 방안을 살펴본다

『아니、늘까지 뎃수?』

『그럼요!』

인숙이가 놀낼만도 한것은 숙히가 일전 인숙이의 오는날안으로 이사를하겟다는 말을듯고 그의이사짐을 이집으로 옴겨놋는동시에 솟도 걸어노코를까지 떼노코 기다리기 때문이엿다。

『원참 어쩌자고 이러케 수구를햇서용?』

『수구는 내가 햇나요 일부가햇지!」。 삭전만 만히 내노시구려!』

하고 숙히는 여전히 롱담을한다。

『그야 물론 이지마는……얼마나?』

인숙은 우선 방분터이 지갑을 끄낸다。

『아따ー급하기도 하시지ー숨이나 돌리시고 찬찬이 못내서요 삭전은 벌서 주엇답니다。』

『오ー참、이런 바보맛나ー지금이 방중인데、여태 삭전을 안바더 갓슬리가업지안치!』

인숙이의 말에 숙히는 여전히 벙글벙글웃으스며

『네 그럿찬어요。아무때 해도 할것인데 오시기전에 해버리면 손쉽지안허요──그래 내말대로 품군을 어더 가지고 이사집을 날느고는、솟을 걸나햇지요! 허락도안맛고 그런짓을 해서 꾸중을 드를줄 아럿더니 아니、되려 칭찬을 하십니까?』

『하하하──거참 대단 잘햇한 일인걸!──』

인숙이와 숙히가 마주 명랑한 우슴을 우스며 담화하는바람에 주인로파도 호기심에 끌리여서 건너방으로 고개를 듸밀며 말참례를 한다。

『이러케 참、밤 느께 오실줄 아럿스면、이사짐을 옴기길잘햇지요──。여적 솟도 안걸고 불도 안떼서보시요、좀쓸쓸하십니까?』그러치안허도 새로 이사한 집은 쓸쓸한 법인데、』

하고、그는 두 젊은 부인을번가려 처다본다。

『그러치요、할머니 말슴이 올흡니다。참 이러케 댁에와서 페를 끼치게 되여서……』

인숙은 비로소 주개의 인사를 정식으로 하엿다。

『웬 천만의 말슴두……참 이아기어머니와 한고향에 사섯다지요?──그러치만 어떠케 그러케도 친절하실까? 지금세상에 남의일을 그러케 알들이 보아줄 사람이 누가 잇겟소──그래 처음에는 바로이대에서 이사를 오는줄아럿지요──외조월 품군과가티 이사집을 날느고 솟을 걸고 하시기에──』

로파의 솟을 걸엇다는 말에 인숙은 의아해서

『네?솟을 걸다니요!……』

『호호호……아니 정말 이댁이 솟을 걸엇서요!내참 처음밧구면요──처음에 품군영감이 솟을 거는데、철판솟을 처음 걸어보는지 잘못거는모양이더군요──그것을 저댁이 보구섯더니만──예이 갑갑해 죽것네 영감님은 비키시요 내가 걸테니──하고 팔울것고 달녀들드니만 아니 눈깜짝할동안에 솟을 훌륭하게 걸어노앗겟지──。영감도 그것을보더니 어처구니가 업던지 허허웃습듸다그려!』

로파는 신이나서 말하는데숙히는얼적은 웃음을 먹음으면서

『난 서울와서 솟도 잘걸고 장작도 잘패고 한답니다!이담에도 그런일이잇거든 나를를 너대서요!』

인숙은 기가막힌듯이 한동안 아무말업시 숙히를 다시 처다보고잇섯다。